

글. 변지혜 Byun, Ji-hye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하이테크놀로지 시대, 미래로 돌아가다

Back to the future, high-technology era

문득 스마트 폰으로 멀리 계신 부모님께 오늘 먹은 음식 사진을 보내며 안부를 여쭙고,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다가 이메일을 마저 확인하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기계가 뭐라고 이렇게 웃다, 울다, 기쁘다, 슬프게 되는 것일까?

기술이라는 게 참 놀랍다. 기술(技術)의 사전적인 뜻은 1)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2)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자연에서부터 필요에 의해 유용하도록 하나씩 늘어오다 보니 스마트폰도, 거대한 건축물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음이 새삼스럽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백남준 작품 <다다익선>은 처음 계획하여 설치될 때에는 화려한 브라운관 텔레비전 타워로 웅장함과 기술을 드러냈지만, 2015년 현재는 상당수의 브라운관 TV가 꺼져서 상층부는 거의 다 꺼진 상태로, 중·하층부도 드문드문 꺼져있는 상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작품의 소재였던 브라운관 TV가 사라지고 LCD, LED 모니터로 교체되자 TV를 만드는 곳도, TV의 부품을 만드는 곳도 사라져버렸다. 문화재든 미술작품이든 원래의 재료를 구할 수만 있다면야 그것으로 보수·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 달라지자 작품의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LCD TV로 교체하자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작품을 계속 선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 때문에 등장한다. 작품의 제목처럼 많이 켜는 텔레비전은 설치한 만큼 고장 나고 또 고장이 나는 것이다.

사실 굳이 매번 인식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술들의 집약 속에서 살고 있다. 수많은 전자회로를 집약하고 집약한 반도체들의 군집들이 모여 만든 텔레비전을 보고, 카메라와 통신부품에 화면부품까지 붙어있는 휴대폰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기술'은 어떠한 의미이며, '기술'이 '예술'이 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 <로우테크놀로지>展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난 2월1일 막을 내렸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을 반복하며 거대한 조직의 부품처럼 일하는 드라마 '미생' 속 장그래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양정욱 작가의 거대한 키네틱 아트 작품 <언제나 피곤은 꿈과 함께>는 나무와 전구, 실 등의 간단한 재료로 뼈대는 단순한 기계적 움직임을 반복한다. 하지만 작품을 만나면 정작 우리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가 보다는 착잡한 우리네 삶의 모습으로 싱숭생숭해질 뿐이다.



홍익대학교에서 광고홍보학과 예술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미술경영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이배경, Metropolis Metaphor, 2014



양정욱, 언제나 피곤은 꿈과 함께, 2013

이배경 작가의 작품 <메트로폴리스 메타포>는 컴퓨터 팬 같은 인공 바람들 위에 떠다니는 정육면체를 통해 팬이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며 부유하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준다. 분명 움직이고 있는데 공중에 봉 떠있는 데다가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얗고 텅 빈 화이트 박스의 모습으로 떠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작품에는 인공 바람을 만드는 기술, 바람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기술, 더 뜨지도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 함께 녹아있다. 다만 기술보다 처량함이 먼저 밀려들어올 뿐.

우리에게 기술은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짧고 바쁜 일상을 빠르고 간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영상통화를 바로 걸면 되고, 집에 강아지가 밥은 잘 먹나 걱정이 되면 컴퓨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다. 결국 기술은 보고 싶음을 해결하고, 염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바쁘다지만, 아무리 편하다지만 기술의 유용함으로 누락되는 것들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직접 만나 밥 먹고 대화하며 함께 하는 것이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빠른 소통이 대신하지 못할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고, 기술로 구현되는 예술작품은 직접 눈으로 보며 소리와 분위기로 체감할 때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의미가 살아난다. 기계가 고장 나면 기계가 주는 기술의 편의성도 사라지지만 우리가 겪은 경험, 추억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도 퇴근 후에는 사람을 만나고, 휴대폰으로 인기 동영상을 보다가도 손 붙잡고 연극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도 당당히 아날로그 경험을 양손에 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각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차 한 잔 하실까요?

글. 이한용_ Lee, Han-yong

전곡선사박물관 학예팀장

은빛타임머신 전곡선사박물관

The time machine landing at Jeongokri site

서울에서 3번 국도를 따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지나면 한탄강을 건너 연천군에 다다른다. 요사이 도로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차로는 불과 1시간 남짓 하지만 아직도 이곳 연천은 멀고도 먼 곳이다. 심리적으로 멀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 여름이면 묵함지뢰가 떠내려 오고 임진강 댐을 갑자기 열어서 피서객들이 수장되며, 잇을 만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군부대 사고는 왜 이리 연천이 많은지, 걸핏하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탱크들은 또 얼마나 생경한 풍경인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연천은 여전히 낯설고 삭막한 곳이다.

이곳 연천에는 많은 사람이 학창시절 국사시험 공부시간에 외웠던 전곡리 구석기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30만 년 전 구석기시대, 호모에렉투스, 주먹도끼, 외우긴 외웠지만 당최와 당지가 않았던 구석기시대, 더구나 아슐리안 주먹도끼까지 등장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전곡리 구석기유적은 1978년 동두천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동두천 미군 2사단에 근무하던 그렉보웬이라는 병사가 한탄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희한하게 생긴 돌 몇 개를 줍기 시작한 것이 전곡리유적의 첫 발견이다. 그렉보웬이 주웠던 희한한 돌들이 바로 문제의 아슐리안 주먹도끼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약 150만 년 전 구석기시대 인류가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도구로서, 오늘날 스마트폰에 비견될 정도로 획기적인 석기였다. 양쪽 면의 날을 세워 양손을 모은 것 같은 모양으로 만든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구석기시대의 맥가이버칼이라고 할 수 있는 만능도구였고, 그 모양까지 좌우대칭으로 예술품에 가까운 놀라운 석기다. 석기의 설계도가 이미 머릿속에 완벽히 그려져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도구였으니, 인류의 인지능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였다는 증거다. 아슐리안이라는 말은 이렇게 잘 만든 주먹도끼들이 처음 발견된 프랑스의 생 따술 (Saint Acheul)에서 따온 이름이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구석기고고학을 전공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전곡리 유적의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2008년부터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추진단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전곡선사박물관 학예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헌데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문제였던 것은 서양의 구석기학자들이 인도를 기준으로 서양에서만 발견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며, 하물며 그것이 정설이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1978년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기 전까지...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발달한 기술이 필요한데 동양에는 이런 기술을 발휘해 만든 주먹도끼가 없었다고 하니, 직접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어도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동양은 서양보다 뒤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서구우월주의 학설이 정설이었다는 얘기다. 근데 동양의 제일 끝 한반도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딱 하고 발견되었으니, 소위 세계구석기 문화이원론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고고학유적이 있지만 세계적인 고고학 지도에 표시되는 유적이 바로 이 전곡리유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세계



전곡리유적에서 출토된 아슐리안 주먹도끼

적으로도 중요한 구석기유적이기 때문에 국가책 첫 페이지에 전곡리유적이 등장했던 것이고, 시험에도 줄곧 출제되었던 것이다.

2011년 4월 25일, 이 전곡리유적에 은빛 타임머신이 내려앉았다. 유적 발견 이후 수십 년간 이어왔던 노력의 결실로 전곡선사박물관이 개관한 것이다. 박물관 건물은 예상치 못했다. 박물관의 설계자는 원시 고대생명체의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아메바의 세포분열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한다. 박물관은 현무암 절벽의 양 끝을 이어주는 다리나 같은 형상이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이무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밤에는 뱀의 문양처럼 타공이 된 곳으로 물 흐르듯 조명이 연출되어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건물은 수백 개 팀이 참여한 국제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프랑스의 X-TU(국내:홍경식 건축사/(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전곡선사박물관은 마치 거대한 타임스페이스 셔틀이 내려앉은 당당한 모습으로 삭막한 연천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원시인 같은 구석기시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 중에는 '구석기박물관을 왜 이리 현대적으로 지었는가?'라며 자못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먹도끼가 구석기시대의 최신기술이었기 때문에 주먹도끼를 담아낼 박물관을 현대건축의 최신기술로 짓게 되었다는 설명에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전곡선사박물관 전경 /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작

전곡선사박물관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박물관 건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특이한 디자인이고 의미성이 탁월하며 건축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전곡리유적을 방문한 외국학자들도 마찬가지로여서 한적한 연천 땅에 이와 같은 초현대식 박물관이 있다는 데 놀라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냥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칭찬을 많이 받곤 한다. 건축이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때, 박물관건축은 현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 담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박물관에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삶, 이런 게 문화적인 삶이 아닐까?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맛과 멋이라고 한다. 문화에 대한 참으로 멋진 해석이다.

오늘도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박물관을 바라보면서 '건축사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업 중의 하나가 박물관건축이지 않을까?', 나아가 '박물관건축이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건축사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박물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박물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해본다.

글. 이지현_ Lee, Ji-hyun

HOK(Hellmuth, Obata and Kassbaum) in Hongkong

농촌과 도시, 보존과 개발의 경계에서 건축하기

Constructing on the border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farm area and the urban area

30년 전, 중국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그들은 집단적인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토지를 공유하였고 획일적이고 단순한 구조의 집에서 살았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진 중국의 경제개혁으로 이농현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에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농촌 인구의 여가시간, 소득, 가족구조 등도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도시-농촌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던 정책 중 하나가 중국의 주민등록제도인 户口(Hukou) 제도인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농촌 또는 도시 거주자로 등록되는 정책이다. 도시민 인지 농민인지에 따라 토지개발의 권리를 비롯해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다르게 적용되었다. 도시민의 개발은 정부의 공식적인 개발 메커니즘에 의해 통제되는 데 반하여 농민의 농촌 지역 개발에 대한 권리는 정부의 시책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이는 훨씬 더 많은 부동산 거래를 낳아 투기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비교적 명확했던 도시-농촌의 거주공간 등 주변 환경은 점차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기형적 공간구조를 낳았다.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물고기 공장이나 골프 코스 옆에 있는 버려진 농장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타워블록 옆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무질서한 작은 집들, 농경지에 버려진 쓸 만한 주택들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풍경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부재 및 건축규정이나 시스템의 허점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개발과정에서 흔히 반복되는 오류이기도 하다.

이번에 소개하는 건축사들은 중국의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건축적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팀으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Rural Urban Framework(RUF)이다. 주로 중국의 농촌과 도시의 개성 있는 개발모형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원형을 보존 하면서 개발을 이루어내는 일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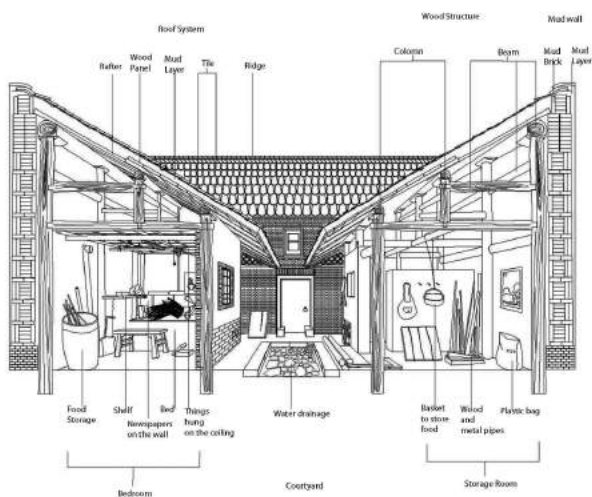
RUF는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개발로 인해 개성을 잃고 애매모호하게 생성된 마을의 형태를 다섯 유형, 즉 도시마을, 공장마을, 도시교외마을, 경쟁소외마을, 농촌마을로 분류하고 건축적 솔루션으로 '건축적 유형(Architectural prototype)'을 제안한다. 아마도 프로토타입을 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빠르게 개발되는 중국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형태의 보존과 현대적 개발의 균형을 찾고, 동시에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시지아 마을(Shijia Village)'이 있다. 중국 시안(Xi'an)의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Shijia Village는 여느 농촌처럼 황폐화되고 있는 서안 근처의 작은 마을이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홍콩 대학생들이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의도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RUF의 John Lin(왼쪽)과 Joshua Bolchover(오른쪽), Photo courtesy RUF

중국의 숨 가쁜 도시화 진행으로 인하여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농촌은 생활 자체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농촌은 외부에서 노동력과 재료, 물품 등을 차용해야 할 만큼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농촌의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단 농촌생활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안뜰 또는 마당을 꼽고, 이를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의 공간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전체 평면적 10m×30m를 디자인하였다.



사계절을 위한 집 단면도(House for all seasons_section_RUF)

이 집의 주된 의도가 '자기 독립성'인 만큼 여러 친환경적인 건축 방안들이 고려되었다. 지붕은 자체가 곡물을 말릴 수 있는 건조 대이면서 가족 구성원끼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우기에는 비를 모았다가 길고 건조한 여름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뜰 중 하나는 돼지를 사육하는 공간이 되면서 가축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사용하여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돌의 방식처럼 부엌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기가 침실을 데우고 굴뚝으로 빠진다.

이 집을 짓는 구조적 방식과 건물의 외피(cladding)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기술을 이 지역에 맞도록 세심하게 결합한 것이 돋보인다. 즉 콘크리트로 내진에 견딜 수 있을 만한 구조 뼈대를 만들고 내벽과 외벽은 필요에 따라서 전통적인 벽돌을 적절하게 돌려쌓아 채웠다.

이 프로젝트 자체의 디테일한 디자인도 흥미롭지만 더 주시할만한 점은 중국의 건축사를 비롯한 개발 설계자들이 농촌의 무분별한 도시화와 도시의 몰개성적인 개발이 만연하는 사회적 현상에 맞서 어떻게 보존과 개발의 경계를 설정하고 건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획일적인 도시화(개발)로 인해 농촌의 전통형식을 잃어버린 한국의 농촌과 소도읍¹⁾의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볼 때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벽돌로 쌓은 사계절을 위한 집(House for all seasons_RUF)

1) 농촌도 도시도 아닌 지역으로 농촌적 성격과 도시적 성격을 동시에 갖춘 중간 형태의 취락

글. 김성환_ Kim, Sung-hwan

Stefan Schmitz bda Architekten und Stadtplaner

얀겔 _ 걷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건축사

Jan Gehl ; Architect who makes cities for walking

건축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10여 년 전, 도서관에 수많은 건축사들의 서적과 도면들을 보면서 컴퓨터 그래픽과 화려한 건물들에 도취되어 있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선배들이 지금까지 그려온 도면들과 모델을 가지고 오라며 필자의 동기들을 불러 모았고, 동기들 모두는 긴장하고 각자의 모델과 도면을 들고 작업실에 삼삼오오 모였다. 각자 자신의 작품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자기 작품에 빠져 생각을 펼쳐 나갈 즈음, 선배 중 한 명이 조용히 나와 자신의 눈높이에서 신중하게 모든 모델을 관찰하고 난 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모델들이 실제 우리 몸에 맞는 적합한 비례일까?”라고 한 마디를 던졌다. 보이는 것에 취해 기본을 간과하던 나에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 매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졌다.



이번에 소개할 건축사는 덴마크 출신의 얀겔(Jan Gehl)이다. 르 꼬르뷔지에가 정의한 현대건축의 시작을 이끌던 1960년대, 그는 자신이 공부하고 즐기던 건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덴마크 왕립 미술학교를 졸업하던 당시, 그가 경험했던 주류 건축은 자신의 눈에서 볼 때 사람을 위한 건축이 아닌 대량생산과 기계문명에 크게 영향을 받은 콘크리트 덩어리로 이해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 더욱이 심리학자인 아내를 만난 이후로 건축에 대한 이와 같은 질문은 더욱 커져 갔다. 그는 실제로 현대건축,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건축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실무를 경험한 후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등을 돌며 연

구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 둘씩 만들고 정립해 나갔다. 이는 1920년대 르꼬르뷔지에가 제안했던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 거대한 건축물 중심의 사회체계에 대한 정면으로 대립하는 주장이었다.

그 시작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롯된다. 예로부터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현저히 많은, 그리고 기후와 환경이 지배하는 도시 안에서 거의 모든 집들이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자전거로 이동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다. 얀겔의 건축철학은 이 부분에서 시작한다. 어려운 말로 자신의 논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충실한 주제로서 사람 중심의 도시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가 지난 50여 년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유아시절부터 자전거 타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 만들기, 도시 안에 정적인 공간 만들기,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구조로 바꾸기 등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매우 단순하고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제안들로 가장 큰 효과를 본 곳은 지구촌 사람 모두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뉴욕의 타임스퀘어다. Jan Gehl이 처음 뉴욕 타임스퀘어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제안했을 때, 뉴욕시 당국은 “자동차로 통근하는 양을 줄이는 대신, 자전거나 지하철의 이용을 늘리고 뉴욕시민을 걷게 하자”는 개념 아래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당시 Jan Gehl의 생각은 이러하였다. 만약 세계적인 대도시 중 하나인 뉴욕,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타임스퀘어에서 자신의 기초적인 생각과 철학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세계 어느 도시에도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도전의식이 밑바탕에 있었다. 그는 타임스퀘어를 바라보며 고향 코펜하겐이 지난 50년 동안 가꿔온 자전거길을 5년 안에 뉴욕의 보다 많은 곳에서 보는 꿈을 꾸었고, 그 시작이 바로 상징성이 매우 강한 장소인 타임스퀘어였다. 그는 타임스퀘어 거리 위에 도보공간을 효율적으로 제안한 후, 큰 공사 없이 정확하고 간단한 공간계획을 그대로 실행시켜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 냈다.



2



3



4

이렇듯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의 작업에는 할머니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Jan Gehl은 실제로 할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회고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 안 되는지 보고 실제 생활에서 배워라. 창밖을 내다보고 거리와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관찰해라.”

Jan Gehl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수많은 시간을 걸다니며 삶과 주변을 빌딩사이에서 공부했다. 40년간 지속된 행동에 대한 관찰은 이론적인 연구보다 더 깊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그는 글을 쓰는 것이나 읽는 것에 부족함을 느낀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다가가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의 이런 천부적인 재능은 항상 ‘그가 혹시 유명 건축사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새로이 생기는 건물들은 항상 높아져만 가고 대단위 건물집단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는 ‘브라질리아 신드롬(Brasilia Syndrome)’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화려한 도면이나 건축적인 3D에서 가져오는 아름답게 보이는 도시나 공간의 창조성은 사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

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점을 세분화시켜 이야기하며 그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나는 비야케 잉겔스(Bjarke Ingels)와 아주 특별한 친구다. 처음에는 그의 작업을 일반인에게 무감각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다며 배려 없는 자세로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항상 나에게 와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보여주며 이전의 작업들보다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다. 어느 날인가, 그의 사무실에서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후 그는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가 적힌 메모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표지에 ‘Bjarke는 Jan을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난 40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감성적인 태도와 이성적인 관찰이 한곳에 어우러진 그만의 작업방식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집을 아집이 아닌 생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사람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노력했다.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개개인에게 부여된 재능과 노력은 제각각이다. 하지만 성실하게 이루고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단순하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숙제다.



5

- 1 _ 건축사 안겔(Jan Gehl)
- 2 _ 뉴욕 타임스퀘어
- 3 _ 브라질리아 근대도시(Brasilia Modernist City_Skyscraper City)
- 4 _ 호주 멜버른의 사람 중심의 가로 (People-sized street in Melbourne_Buytaert)
- 5 _ VM Houses_BIG (Bjarke Ingels Group)

건축사지 지역건축특집 시리즈⑤

Special Series of Architecture Magazine: Regional Architecture ⑤

강원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Looking for Identity of Gangwon-do Regional Architecture

그간 건축사지에 수록된 건축 작품들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대한민국 다양한 지역의 작품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한 지역의 작품과 문화적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집을 기획하였다. 지난 호남지역, 부산·경남지역, 제주지역, 충남지역에 이어 마지막으로 강원지역의 문화와 건축을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 대담일시 : 2015년 1월 23일
- 대담장소 : 강원대학교(춘천) 도시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인증준비 및 강사휴게실
- 지역총괄기획 : 김도경 / 강원대학교 교수



김형수 편집국장 : 강원도의 건축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춘천을 방문하여 강원도 건축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원 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특집은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소개하는 특집시리즈의 마지막 회입니다. 그동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를 거쳐 마지막으로 강원도 건축에 대한 특집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지에 작품소개 기회는 수도권 소재 건축사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어 건축사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고,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강원도의 자연은 분명 강원도 건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이러한 강원도 건축의 정체성을 분석하여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그동안 느끼고 경험해왔던 강원도의 자연과 건축에 대하여 편하게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징과 인문·사회적 배경

- 김형수 편집국장



김도경 : 자연환경의 측면에서 강원도는 면적이 매우 넓고 산과 수원지들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자연환경, 특히 강원도 동쪽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태백산맥은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나누는 큰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서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산들로 인해 다시 지역이 세분되고 영동지역은 동서의 폭이 좁은 반면에 남북의 길이가 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강원도 지역의 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지역 건축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강원도 지역의 자연과 인문 환경적 특성에 대해 생각하시고 계신 바를 듣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자연-속초 대표항 ©김도경



강원도의 자연-고성 화진포 ©김도경



대담 참석자(가나다 순)

- 고상균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김도경 교수 / 강원대학교(춘천) 건축학과 교수
- 김형수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편집국장
- 박창근 교수 / 강원대학교(춘천) 건축학과 교수
- 서교하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서건축
- 조호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담
- 최성두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
- 최재석 교수 / 한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김수경, 김창길, 정이숙 편집위원 배석



강원도의 자연-영월 한반도지형 ©김도경



박창근 : 강원지역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문화적인 특징에 비해서 지리적인 특징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입니다. 땅과 물로 이루어진 자연이 강한 컨텍스트로 나타나는데, 그 형상과 스케일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밋밋한 구릉과 험준한 산악지형 그리고 크고 작

은 스케일의 하천과 강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힘차게 흐르는 북한강과 굽이치는 동강, 그리고 동해바다는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많이 다른 속성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지형적인 다양성과 함께 산간지형에서 기인한 교통의 불편함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강원도 각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한 요인입니다. 강원지역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춘천은 경기도 지역인 가평권과 오히려 동질성을 보이는 면이 있고, 원주는 춘천과 또 다르며, 강릉은 해안지역의 특성을 지니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보여줍니다. 태백과 영월, 정선은 또 각자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상균 : 강원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권역과 영동권역으로 구분되며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배경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언어(사투리)로 볼 때 강원지역은 영동과 영서의 교류보다 해안을 따라 북쪽과 남쪽과의 교류가 빈번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고성·속초 지역은 북한사투리, 동해·삼척지역은

경상도 사투리의 역양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 측면에서도 영동지역은 해양성기후로 영서지역에 비해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기온이 유지됩니다. 각 도시는 가까운 거리 내에 수려한 산과 청정 해안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배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강원도 각 지역건축의 구체적 프로그램이 다소 차별화된 모습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 ©http://study.zum.com



최성두 : 저는 강릉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동지방은 동해바다와 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으로서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태백산맥에서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짧고 급한 경사도를 따라 산간의 전통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수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중앙의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형식이나 문화적 전통 등에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는 봄철에 태백산맥에서 불어오는 강한 높새바람으로 다소 심한 기후변화를 겪으며 때로는 4월까지 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름에는 해양성기후의 특성으로 내륙지방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를 보이며, 가을의 맑은 하늘은 아름다운 동해안의 산과 바다를 그림처럼 조명합니다. 겨울에도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2월에 많은 눈이 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천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강릉의 5월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되어 있고, 울곡

이이선생의 뜻을 기리는 울곡제 등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도경 : 태백산맥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영동과 영서의 강한 지역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 분이 영동지역의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면적이 넓으면서 강과 산으로 인해 분할된 영서지역도 좀 더 세분된 지역적 특성을 보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도 들었으면 합니다.



서교하 : 역사적으로 강릉과 춘천은 교류가 적은 반면 원주와 춘천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는 감영이 설치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자리매김하다가 1895년에 근대적인 행정조직체제로 변화하면서 도청이 춘천으로 옮겨졌습니다.

역사와 지리, 문화적 지역색은 산맥이나 강으로 인해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발달하게 되는데, 서울과의 연결에서도 춘천으로 오는 길과 원주로 오는 길이 다름



과거 원주 강원감영



현재 원주 강원감영 ©Linked Datahub by OKFN Korea

니다. 서울에서 춘천은 이틀, 원주는 이틀 반, 강릉은 7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적인 거리감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강원지역 현대건축의 정체성

- 김형수 편집국장

김도경 :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역사와 문화, 지리, 지형적 측면에서 강원도는 하나의 통합된 정체성을 지니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분된 지역적 특성이 각 지역 현대건축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일정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이며, 앞으로 강원지역 건축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얘기해 주셨으며 합니다.



조호성 : 강원지역의 현대건축은 각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설계되었을 뿐 강원도가 지닌 인문·사회적 기반이나 자연 환경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낙후한 강원도는 건축에 있어서도 형태와 기능, 재료 등에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사들의 노력이

디자인 아이덴티티 형성에 주로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점이 그대로 강원도 현대건축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건축작품에 의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상균 : 영동지역은 수려한 산과 청정해안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과의 관계성을 해석하고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접근이 강원도 건축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의 경우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풍경에 어울리는 건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교하 :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강원도는 산과 산이 계곡의 물로 끊어지는 듯 하다가도 세찬 바람이 휘감으며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산과 물이 만나는 곳에 작은 점 몇 개를 찍어놓은 듯이 환경과 공생(Symbiotic with Environment)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자연환경과 대결하여 이기

려 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축이 강원도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8도 사람들을 평하라고 하자, 정도전은 강원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암하노불(巖下老佛)’. 자학적 해석으로는 순박하고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의미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세속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돌 같은 성질과 인자하고 자비로운 부처의 심성을 닮았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박창근 : 건축디자인은 우선 그 컨텍스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강한 자연환경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강원지역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과 도시라는 관점에서 건축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강원지역은 전체적인 공통성보다 지역적인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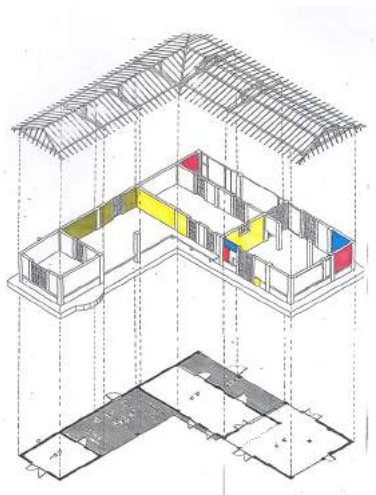
한편 현재 강원지역 현대건축문화의 현황을 보면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춘천의 예를 들면, 한국 근대건축의 거장인故김수근 선생의 작품 이후에는 눈에 띄는 현대건축물이 많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적인 다양성 혹은 공통적인 정체성의 부재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역주의적인 폐쇄성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다양한 건축문화의 수용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어느덧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루브르박물관을 증축한 유리 피라미드는 파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건축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포용력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정체성이 더 직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건축디자인산업계에서도 이러한 포용력을 발휘한다면 강원지역의 현대건축문화가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석 : 강원 지역의 ‘현대건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강원도의 건축적 흐름이 어떠한지를 되돌아 본 후에 강원도 현재의 건축을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전통적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통에 대한 이해 없이 강원도에 지어졌거

나 지어질 현대의 건축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정체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역사를 같은 맥락에서 이어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한 대안리 농가주택의 전체 투상도와 색채계획도(설계:최재석)

가장 가깝게는 근대기의 건축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건축을 논할 때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2003년에 강원도의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가 출간된 바 있습니다. 가치 있는 작업이라 생각했으나 그 이후 지속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시건축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려는 건축기록작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없이 자기 지

역을 역사적 혹은 문화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주지역의 경우에도 몇 년 전 원주의 근대건축물 목록화 작업을 위해 시(市)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물론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작업이 도시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타 지역으로의 인구 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도시의 슬럼화는 굳이 두고 보지 않아도 뻗습니다. 이런 슬럼화를 극복하여 사람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초대받은 집에 갔더니 차린 것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요? 현재는 강원도의 특성과 무관하게 여전히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과의 상호작용도 없이 다들 자기 나름대로 짓다보니 주변과 동떨어진 나 홀로 건축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 지어질 건축물을 논하기보다는 건축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강원도의 건축이념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문해 봅니다.

김도경 : 현대건축 중에 강원도의 정체성을 지닌 건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강원지역의 건축사와 작품 중에 기억에 남은 작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성 : 특정 건축사와 작품으로 말하긴 어려운 일이지만 그 동안 많은 건축사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건축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은 지역사회의 일환



강원도 근대문화유산 중 철원 노동당사_등록문화재 제22호



춘천어린이회관_김수근 설계

으로 저의 건축환경적 경험과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건축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 지어진 건축물 중에故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춘천어린이회관(춘천, 1979년)과 강원도향토공예관(춘천, 1983년) 등의 작품을 통해 건축적 사고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근 : 자연과의 조화 및 지역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홍천의 팜파스휴게소와 양구에 있는 박수근미술관을 들고 싶습니다. 박수근미술관은 건축물의 매스가 언덕의 형상을 한 대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완성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팜파스휴게소에서는 배경의 나지막한 산세와 어울리는 넉넉한 데크공간을 볼 수 있으며, 주변에서 풍부하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건축형상과 어울리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관(설계:이종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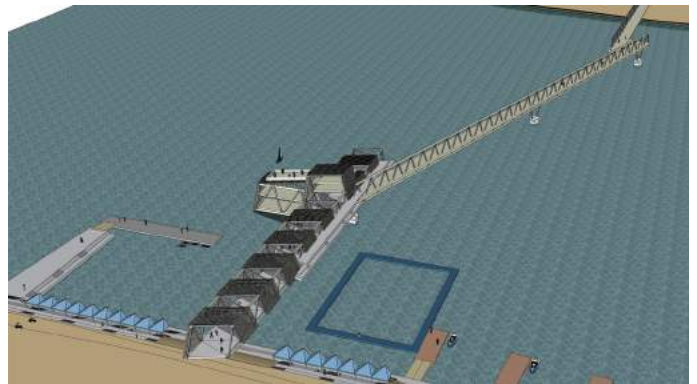


팜파스 휴게소(설계:이종호)
©www.segye.com

제가 설계한 것으로는 화천읍 앞 북한강변에 지은 화천수상스포츠타운 피니쉬타워가 생각납니다. 북한강 위에 교량과 흡사한 형태의 구조물이 먼 산을 배경으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큰 스케일의 북한강과 경쟁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일반적인 피니쉬타워처럼 수직으로 솟는 오브제가 아니라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매스를 선택하였습니다.



화천수상스포츠타운 피니쉬타워 전경(설계:박창근)



화천수상스포츠타운 피니쉬타워 계획안



화천수상스포츠타운 피니쉬타워 내부

최성두 : 강릉의 대표적인 현대건축으로 2002년에 건축된 가톨릭초당동성당(김영섭)과 2014년 강릉 참소리·국제영화박물관(최성두),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무영건축),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경포현대호텔(리차드 마이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계해서 지난해 완공한 참소리·국제영화박물관은 아름다운 경포호수를 마주한 전망 좋은 곳으로, 겨울철마다 다양한 철새들이 모여드는 풍경을 모티브로 삼아 호숫가 옆 소나무 숲에 새끼를 잉태하는 어미새의 고요하고 우아한 자태를 건축물로 재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jeongchi.com



강릉 참소리·국제영화박물관(설계:최성두)

고상균 : 강릉의 사례로 볼 때, 도시와 건축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저탄소녹색도시의 지정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도시와 건축의 변화를 가져온 이슈는 ‘커피’라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 커피를 테마로 한 거리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도시에 변화가 생긴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커피명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축제가 만들어지고 거리가 조성되었으며, 300개 이상의 전문커피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속에 다양한 가로 풍경이 생겨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지자체 주도의 정책사업이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계획적인 변화 유도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움직임이었다는 점입니다. 커피라는 소재가 강릉지역의 수려하고 온화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외부로의 실내공간 확장과 함께 건축을 매개로 커피 향과 자연(숲과 바다, 호수)이 통합된 강릉지역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카페거리 ©http://masoncarol.tistory.com

서교하 : 강원지역은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목재 생산지라는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건축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목조건축의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친환경적인 재료이며, 국내 최대의 목재 생산지라는 점에서 강원도 건축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가 목조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산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목재를 생산하고, 목조건축을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화천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생산, 가공, 설치가 모두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환경건축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현대의 목조건축에 전통성 표현의 수용과 계승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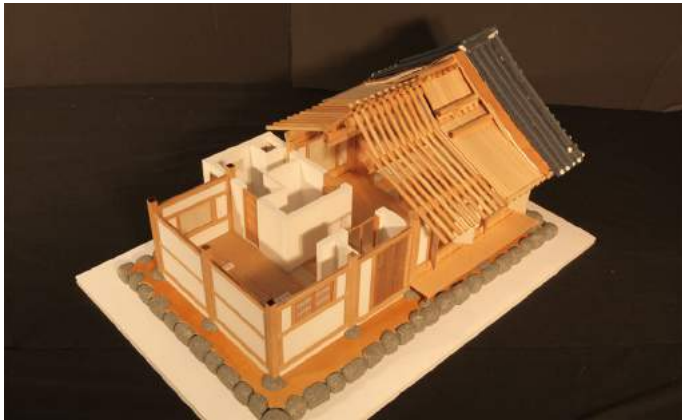
화천목재문화체험장(설계:서교하)

강원지역 건축교육의 방향 및 특성

- 김형수 편집국장

김도경 :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원지역 건축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미래의 건축사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원산간지역의 주택을 의뢰받아 설계하던 중 저도 모르게 강원산간지역에 있던 전통적인 민가의 평면과 거의 유사한 주택을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교육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축역사와 한국전통건축 전공자로서 2006년 강원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목조건축, 특히 전통 목조건축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5년 1학기부터는 일반 대학의 건축학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한옥설계스튜디오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간형 한옥(설계:김도경)



강원대학교(춘천) 건축학과 학생들이 직접 지은 학교 내 정자(지지헌) 앞에서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역 건축의 정체성, 나아가서는 한국건축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도 건축학과가 있는 여러 대학이 있는데, 건축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원지역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상균 : 저희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는 Wellness(건강, 레저, 복지) 분야의 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환경친화건축, 목조건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타 지역 건축교육과 차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30만 정도의 인구를 지닌 강릉과 원주, 춘천과 같은 강원도의 도시규모는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건축과 도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수려한 자연환경, 사회적 변화와 국제적 경향, 도시 및 농·산·어촌의 공존 등 삶의 다양성과 질에 대한 도시 및 건축적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풍부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근 : 강원지역은 자연과 소통하는 건축과 도시를 경험하고 이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건축학과는 교육목표를 ‘Green Architecture를 창조하는 Green Architect의 양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Green Architecture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건축 및 도시를 만드는 것과 에너지 과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건축을 만드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건축디자인은 보편성과 객관성의 가치 아래 자기만의 생각을 전개하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건축사의 독특한 시각이 녹아있지 않으면 좋은 건축물로 완성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건축, 도시와 자연이 뒤섞여 있고 지역마다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지역은 건축사에게 필요한 이러한 소양, 즉 자기만의 생각을 전개해나가는 훈련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기반에 충실한 방법론은 그대로 다른 지역에도,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똑같은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더 넓은 세계 무대에서 건축사의 꿈을 펼쳐보는 포부를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최재석 : 지방 소재 대학으로서, 각 시나 군의 도시건축 행정담당자,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주, 그리고 소재지의 건축학과 교수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도시건축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각 분야별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보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시건축에 대한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좋은 도시건축물을 만들자고 하면서도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침범 받지 않겠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어렵습니다.

강원도 소재 대학의 학생 대부분은 타 지역 학생들(강원지역 각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60~70%가 타 지역 학생임)이라 강원도에 대해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도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적어도 자기가 속한 지역, 즉 강원지역에 대한 탐방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성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건축사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도록 독려하여 강원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기존의 질서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화된 건축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건축설계의 패러다임이 사람과 사람, 자연과 인간, 각 공간의 가변성, 시간 흐름의 관계 등 무수히 많은 관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관계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건축사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지거나 주어질 수 있는 감각 또는 감성이 주요한 덕목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에 기존의 틀 안에서 기계론적 사고방식으로 일궈놓은 매끈한 공간을 지나 세련된 감성과 감각으로 프란체스코 콜로나(francesco colonna)가 저서 <Hypnerotomachia poliphili(폴리피로의 꿈, Called in English Poliphilo's Strife of Love in a Dream or The Dream of Poliphilus)>에서 표현한 정원과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키테라섬으로 사랑의 여정을 떠났으면 합니다.



키테라섬으로의 출항 © www.wikipedia.org
(Watteau, Jean-Antoine The Embarkation for Cythera, 1717, Louvre)

강원지역 건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

- 김형수 편집국장

김도경 : 마지막으로 강원지역 건축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비전이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를 포함한 사회적인 노력 등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에서 보았듯이 강원도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큰 테두리에서 강원도의 특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므로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만의 특성을 갖기 위한 도시건축디자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건축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각 시별 혹은 군별로 최소한의 도시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일본의 한 사례가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 마을에서 시간 차를 두고 마을을 계속해서 찍은 사진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사진을 보고 마을 경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몇 층 이상은 짓지 말자’ 등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원도 건축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면, ‘숲’을 강원도의 디자인 주제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생활에서 인간이 여유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숲’입니다. “숲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듯이, 이런 치유적인 디자인이 강원도만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숲이 지닌 이미지와 산이 많은 강원도의 자연환경 특성을 건축에 접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것이 강원도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권리와 이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화와 도시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그리고 대학과 토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상균 : 영동지역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배경으로 이와 관계성을 형성(해석)하는 건축적 접근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봅니다. 강릉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 여부에 따라 문화·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가 한층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화의 인프라가 형성되고 수도권과의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휴양의 패턴도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성 및 차별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건축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성두 : 강원도는 평창과 강릉을 중심으로 2018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바야흐로 현대건축의 전성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관광과 문화, 상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 인프라를 위한 호텔, 콘도미니엄, 문화시설 분야의 다양한 건축 활동과 은퇴자와 실버세대의 노후를 위한 휴양형 건축 역시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한편 강원지역은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건축계에서도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소규모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건축디자인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사전문인제도(분야별 세부화)와 종합건축사제도(개인, 3인, 5인, 7인, 10인 이상 등)의 활성화를 통해 설계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근 : 강원지역에는 작은 규모의 도시들이 다양한 형상의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도시와는 다르게 도시공간에서 자연의 요소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자연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소도시들이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춘천, 원주, 강릉 등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로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도시 위주로 국토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한반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이탈리아 북부의 산간도시들처럼 작은 도시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산간지역이 많은 대한민국의 국토경영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모든 면에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폭 4km의 DMZ 떠는 남북을 잇는 새로운 장소로 탄생할 것입니다. 주변에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근접한 지역은 도시적인 스케일의 장소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강원지역에 위치한 DMZ 지역은 천혜의 자연이 보존되면서 그 속에 소도시가 분포하여 남과 북을 잇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DMZ 접경지역 ©ggtour.or.kr

김형수 편집국장 : 오랜 시간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백산맥과 동해 그리고 휴전선이 어우러진 강원도의

자연적인 환경은 강원도 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연환경과 대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이 강원도 건축의 정체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도시적인 세련됨보다는 자연친화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강원도 건축의 미래를 기대하며, ‘지역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마지막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균

Ko, Sang-kyun /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로, 가톨릭관
동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학
석사와 동경대학 대학원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지이건
축도시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환경행동연
구를 기반으로 의료 및 노인관련의 복지시설, 지역시설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강원지회
부회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시설 종합평가위원, (사)
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김도경

Kim, Do-kyoung / 강원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강원대학교(춘천) 도시건축공학부 교수로, 고려대학교 건
축공학과를 졸업(공학사)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공학과
석사(공학석사, 건축계획학)와 건축공학과 박사(공학박사,
건축계획학)를 취득했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이사, 강원도
지방방설기술심사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
문위원,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박창근

Park, Chang-geun / 강원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강원대학교(춘천) 도시건축공학부 교수로, 서울대학교 건축학
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
다. 이후 S.O.M.(Chicago)과 B.I.P. & Associates(Chicago)
를 거쳐 아카바 도시건축연구소에서 실무를 다녔으며, 2000
년에는 건축포럼건축사무소를 설립하여 인천주택, 방이동
주택 그리고 백제대교인도교하사업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길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건축 혹은 도시에서의 이동의 공간
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최재석

Choi, Jae-suk / 한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학과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네덜란드 근대건축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원주근대건축을 찾아서(2005)>, <원주도시환경이야기(2013)>, <집 그리고 삶(시골집 고쳐사는 즐거움)(2014)> 등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커피 포레스트 바이 테라로사

Coffee Forest by Terarosa



1



1.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로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는 건물 외경(후면)
2. 소나무에 둘러싸인 건물
3. 동해바다와 대관령으로 투명하게
열려 있는 테라스와 건물



설계자 | 김정기_KIRA | 엔탑 건축사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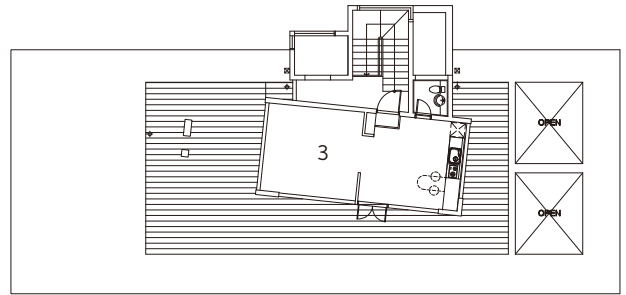
(주)유창건축사사무소와 (주)이래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고 2001년 엔탑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해 대표를 맡고 있다. 강릉시 안전관리 자문위원, 강릉시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사위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고용창출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에 여러 번 선정된 바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다우리호텔, 울곡병원, 성웅빌딩, 탑스크린골프연습장, 김동명문학관 등이 있다.

건축주 | 김미려
감리자 | 김정기
시공사 | 위탁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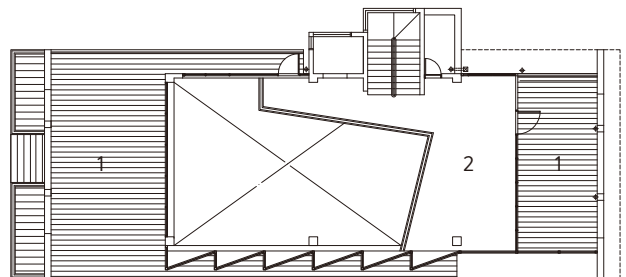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158-4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5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02.26㎡
연면적(Gross Floor Area) | 299.1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8.13%
용적률(Floor Area Ratio) | 57.54%
규모(Building Scope) |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10 ~ 2010.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11 ~ 2011. 07
사진(Photographer) | 이중훈(Lee, Joong-hoon)

- 설계팀 : 김정기, 최만영, 함은경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미래ISE
 - 설비분야 : 대한설계감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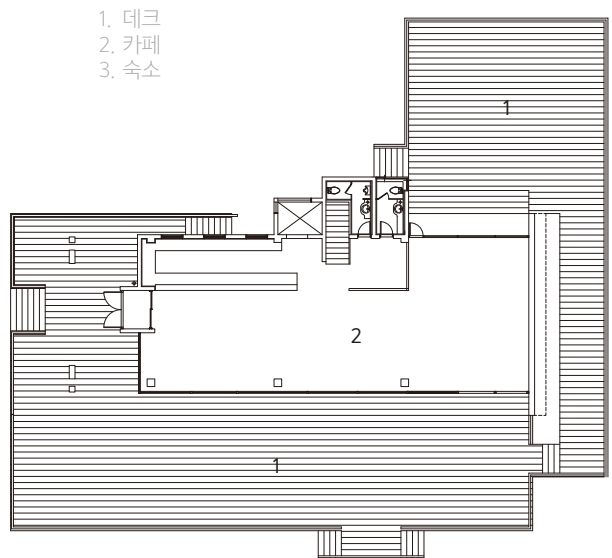
Client | Kim Mi-ryeo
Architect | Kim Jeong-kee
Project team | Choi Min-young, Ham Eun-gyeong
General Contractor | Construction on Consignment
Location | 158-4, Sandaewol-ri, Sacheon-myeon, Gangneung-si,
Gangwon-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Mi-rae ISE
HVAC Engineer | Dae-Hyeon
Electrical Engineer | Dae-Hyeon
Fire Engineer | Dae-Hyeon
Finishing | Exposed mass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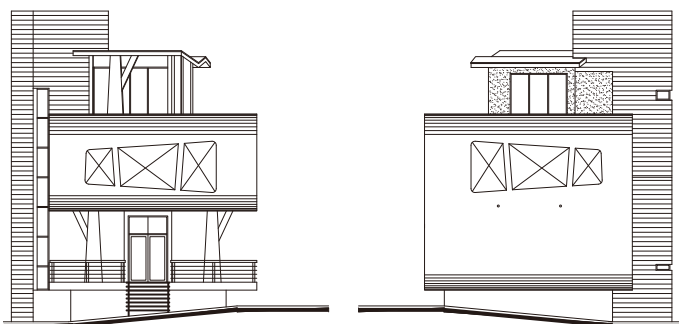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바다향이 가득한 1층 테라스

도심의 카페문화가 요란한 형태, 화려한 인테리어, 바쁜 사람들, 조금만 휴식이라면 술내음, 바다내음, 그 바람과 여유가 있는 것이 강릉의 카페문화라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은 모양새로 경포바다, 소나무, 사계절 다른 모습의 대관령의 멋진 그림을 커피 한 잔 값으로 감상할 수 있는 ‘포레스트 바이 테라로사’아말로 강릉의 지역성을 가장 잘 반영한 카페라 할 수 있다.

멀리 대관령을 배경으로 순포해수욕장과 순포늪을 이웃으로 한 소나무 숲속에 커피 향 가득한 포레스트가 보일 듯 말듯 숨어 있다. 늦은 가을 철새 가득한 순포개(호수)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소나무 밑동 사이사이로 보이는 동해 푸른바다는 세상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게 한다. 여기 저기 옮겨 앉아 각기 다른 느낌에 젖다보면 어느새 어둠이 숲속 아래 깔리고, 하나 둘 밝혀진 조명은 새로운 얼굴로 반겨준다. 바다와 대관령으로 투명하게 열려 있는 1층과 2층엔 커피 향이 가득하고, 3층 숙소에는 숲길 향이 가득하고, 건물 밖 테라스에는 바다 향이 가득하다. 이것이 자연과 문화가 소통하고 공존하는 건축물이 아니겠는가?

경포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해 앞으로는 순포해수욕장을, 뒤로는 순포호수를 이웃한 소나무 숲을 만나게 된다. 인근에는 먼저 자리 잡은 아담한 커피숍들이 있고, 멀리 뒤쪽에는 오래 전 들어선 펜션이 있는 그림 좋은 소나무 숲이다. 마감재로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를 과감하게 시도하였고, 전·후면에 넓게 유리를 넣어 안팎에서도 서로를 훤히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앞쪽 테라스에서도 건물 내부를 통해 뒤쪽의 대관령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요소요소에 오픈스페이스를 두어 곳곳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들게 하였다.



1층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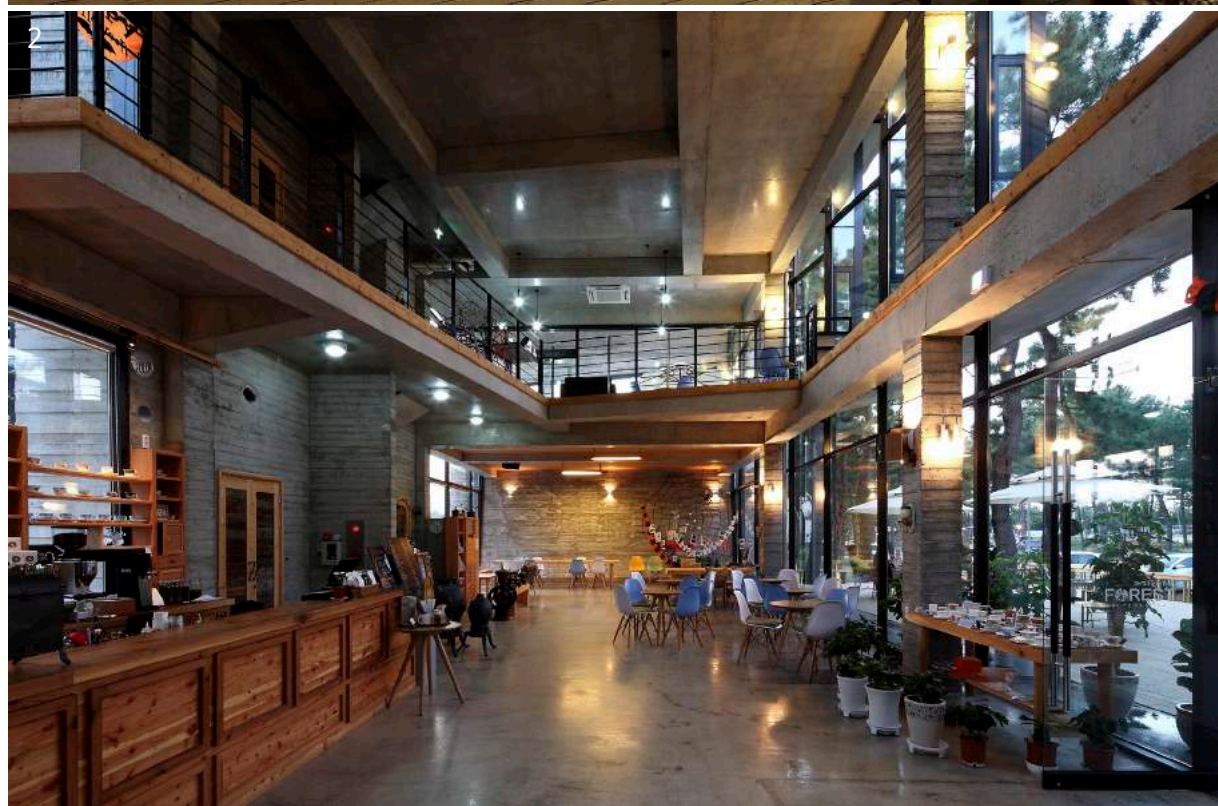


2층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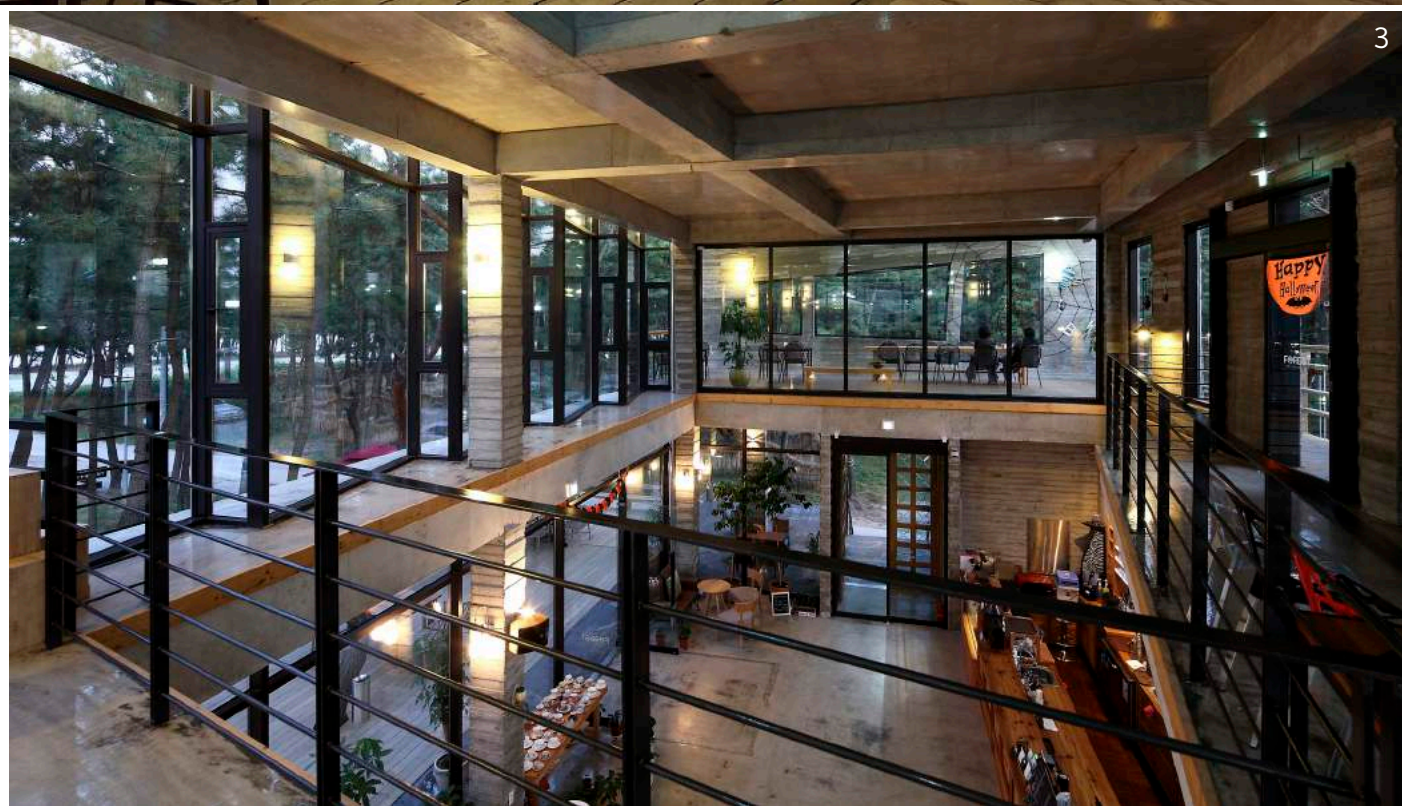


1

1. 조명으로 보다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
2. 카페 내부
3. 전·후면 모두 넓게 유리로 마감해 안팎이 흰이 보이는 건물



2



DMZ 야생동물생태관

MOWA(Museum Of Wild Animal)





설계자 | 조호성 KIRA | 건축사사무소 도담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건축사사무소 도담 대표와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강원도청에서 주최하는 경관우수 건축물대상(주거/비주거부문)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양구군에서 발주한 2011년 현상설계 당선 및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에서 주관하는 2012 인공지반녹화대상 최우수상 수상의 이력이 있다.



설계자 | 김복지 |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견씨앤씨 건축사사무소와 오성종합건축사사무소를 거치며 실무를 쌓았다. 2000년에 건축사사무소 건축포럼을 설립해서 교회건축과 연수시설, 주택 등과 광주 시청차미디어센터, DMZ야생동물생태관을 설계하였다. 2001년부터 아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 간 설계교육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박창근 | 강원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강원대학교(춘천) 도시건축공학부 교수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강원대학교(춘천) 도시건축공학부 교수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S.O.M.(Chicago)과 B.I.P. & Associates(Chicago)를 거쳐 아키텍 도시건축연구소에서 실무를 다졌으며, 2000년에는 건축포럼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인천주택, 방이동주택 그리고 백제대학교인도교환사업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길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건축 혹은 도시에서의 이동의 공간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건축주 | 양구군청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도담
시공사 | 보대건설

대지위치 |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183
주요용도 | 문화시설(박물관)
대지면적(Site Area) | 5,623㎡
건축면적(Building Area) | 713.43㎡
연면적(Gross Floor Area) | 880.6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2.69%
용적률(Floor Area Ratio) | 15.66%
규모(Building Scope)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화강석버너구이, 내후성강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7 ~ 2011.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2 ~ 2013. 05
사진(Photographer) | 조호성(Cho, Ho-sung)

- 설계팀 : 연성호, 조성숙, 우다정, 박병수, 류건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나라구조
 - 기계설비분야 : 청림 ENG
 - 전기통신분야 : 무림 전기

Client | Yanggu, County
Architect | Cho, Ho-sung / Kim, Bok-Ji / Park, Chang-guen
Project team | Yeon, Seong-ho / Cho, Seong-suk / Woo, Da-jeong
Park, beoung-su / Rue, geon-hee
General Contractor | Bo-Dea Construction Co.
Location | 183, Wondang ri, Yanggu County, Gangwon-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NA-RA, Engineer
HVAC Engineer | Cheong-rim, Engineer
Electrical Engineer | Mu-rim, Engineer
Fire Engineer | Cheong-rim, Engineer & Mu-rim, Engineer
Finishing/ EXT | Grinate, Corten Steel, red cedar



1



2



3



4

1, 2 _ 외부 계단 3 _ 배면 전경 4 _ 외부 연결 브릿지

DMZ 환경은 대립의 장벽이며 야생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분단과 통일의 상징뿐만 아니라 무한한 개발과 보존의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와 후손들에게 이런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DMZ 야생동물 생태에 관하여 대처해 나가고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DMZ 야생동물생태관을 설계하게 되었다.

건물의 배치는 진입마당에서 두 건물 사이 열림길이 보이며 이동하면 대립적이고 상징화된 DMZ벽을 만나고, 높은 벽 사이로 투명한 소통의 다리를 볼 수 있다. 이 다리는 맑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통일의 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으며 투시도법을 극적으로 사용하여 점점 멀어져가는 벽 사이로 저 멀리 화합의 문이 소통의 다리를 통해 보이게 설계하였다. 어렵고 힘든 자연과 전쟁의 흔적이 공존하는 DMZ를 은유해 설계된 화합의 길을 걷다 보면 새롭게 태어난 화합의 문이 우리들 앞에 다가 올 것이다. 이 화합의 문에서 내려다보면 지금의 상황과 미래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서구의 정형화된 투시도법 배치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적인 배치를 차용하였으며, 딱딱해지는 현대사회의 정서를 자연스러운 동선유도로 변화되는 건물의 형태를 느끼도록 하여 부드럽게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외부형태는 DMZ의 불안정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왜곡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의 시각 반응을 통한 불편한 지각 심리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이 불편한 지각반응은 분단의 상징 중 하나인 녹슨 철마와 전투모, 철조망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외벽을 통해 전시관 입구까지 이어진다.

화합의 길은 두 개의 벽면을 마주하는데 한 벽면은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데 다른 벽면은 오히려 빛이 인색하면서 우울해 보이게 하여 대립의 극대화를 강조하였다. 이런 의도된 배치는 지금 남북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시켰다. 또 청정 양구를 부각시키고자 방문자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 회자되도록 하여 장소성 및 랜드마크적 요소의 부족을 불안정한 형태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불규칙적이고 비정형적이며 파격이나 변화를 추구한다. 형태가 왜곡되고 좌표 질서도 깨트린다.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두어 관계성에 기대어 본다. 하나의 풍경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은 그만큼 안정적이어서 분산되기 어렵고 동시에 개별요소에 대한 전체 질서, 즉 조형규범을 약하게 한다. 전체 질서가 개별요소에 개입하지 않게 하여 개별요소가 하나씩 떨어져 따로 놀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조형적 미덕이 된다.

퇴계동 근린생활시설

New-Test Company

설계자 | 조호성_KIRA | 건축사무소 도담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택지 주거지역의 부지에 조그마한 조경회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기존의 삭막한 주거지 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부지와 건물 안으로 자연을 끌어 들여 쾌적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업무 효율과 편안함을 주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이웃과의 관계형성을 기대하였다.

6m 전면도로에서 6m 정도 후퇴하여 출입구와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휴게와 조경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출입을 위한 공간에 자작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다.

전면 파사드는 목재널과 노출콘크리트 만들기로 마감하여 자작나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1층 내부벽면은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나무를 추상화 하였으며, 남측면은 그 나뭇잎들을 추출하여 더욱 추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조경관련회사의 외형적인 이미지 창출로 인지성 및 상징성을 부여하고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건축주 | (주)유택건설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도담
 시공사 | 성암건설(주)

대지위치 |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길 5번길 4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20.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57.2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99.0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11%
 용적률(Floor Area Ratio) | 93.37%
 규모(Building Scope)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면만들기, 15T적삼목,
 스프릿블럭, 알루미늄쉬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7. 10 ~ 2008. 0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8. 04 ~ 2008. 08
 사진(Photographer) | 조호성(Cho, Ho-sung)

- 설계팀 : 연성호, 조성숙, 우다정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나라구조
 - 기계설비분야 : 오흥
 - 전기통신분야 : 강일 ENG

Client | New-Text Company
 Architect | Cho, Ho-sung
 Project team | Yeon, Seong-ho / Cho, Seong-suk
 Woo, Da-jeong
 General Contractor | Seong-Arm Construction
 Location | 4, Namchuncheon 5-gil, Chuncheon-si,
 Gangwon-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NA-RA, Engineer
 HVAC Engineer | San-HVAC, Engineer
 Electrical Engineer | Gang-ill Engineer
 Fire Engineer | Gang-ill Engineer
 Finishing/ EXT | Concrete facing, Aluminum panel, red cedar

-
- 1 _ 전경
 - 2 _ 실내 공간
 - 3 _ 주출입구
 - 4 _ 측면 전경
 - 5 _ 휴게 테라스



화천목재문화체험장

Hwacheon Wood Culture Experience Center





설계자 | 서교하_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서건축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회산건축에서 10여 년 간 실무를 배우며 소중한 경험을 쌓다 IMF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서건축 대표로 있으며 원주시 건축위원 및 경관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원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몇 분의 건축적 동지들과 함께 '원주근대문화유산보존연구회'를 결성하여 지역의 정체성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저예산 등 열악한 건축환경으로 인해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실현 가능한 이상을 찾기 위해 실험적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로 배론성지 순례자들의 집, 가나안 세계지도자 교육원, 동강탐방안내소, 임계공소, 월송공소, 씨유메디칼씨스템 원주공장, 흥천군 장례식장, 작은예수공동체그룹 홈, 이재빌딩, 서원주신협빌딩 등이 있다.

건축주 | 화천군청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한울

시공사 | 중미건설(합), 목재전문시공업체 : (주)수피아건축

대지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30번지외 서오지리3필지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대지 면적 : 28,697.06㎡

건축 면적 : 1,438.56㎡

연 면 적 : 1,907.09㎡

건 폐 율 : 5.01%

용 적 륜 : 6.65%

규 모 : 지상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중목구조(글루램)

주요마감재 : 낙엽송사이딩, 스프릿블록

설계 기간 : 2010. 05 ~ 2010. 11

공사 기간 : 2012. 02 ~ 2013. 04

· 설계팀 : 정우동, 김선순, 신수현, 박광진

· 전문기술협력

- 구조 분야 : (주)나라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신화엔지니어링

- 전기설비분야 : (주)영광이앤아이

- 소방설비분야 : (주)윤영방재엔지니어링

- 토목측량분야 : 대상엔지니어링(주), (주)정인토목엔지니어링

Client | Hwacheon-gun office

Architect | Seo, Kyo-ha

Project team | Jeong, U-dong / Kim, Seon-sun / Shin, Su-hyeon /
Park, Gwang-jin

General Contractor | Jungmi Conteractor

Location | 30, Seooji-ri, Hanam-myeon, Hwacheon-gun, Gangwon-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Timber structure

Structure Engineer | NARA Structure engineering construction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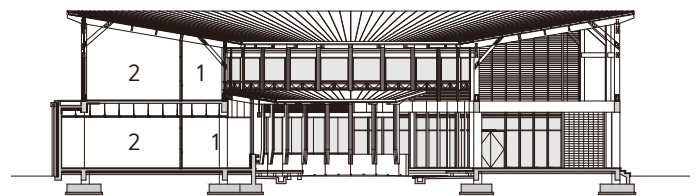
HVAC Engineer | SHINHWA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YOUNGGWANG E&I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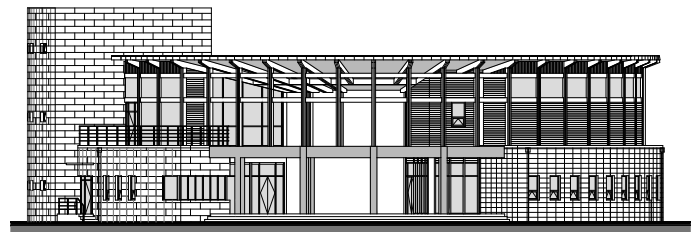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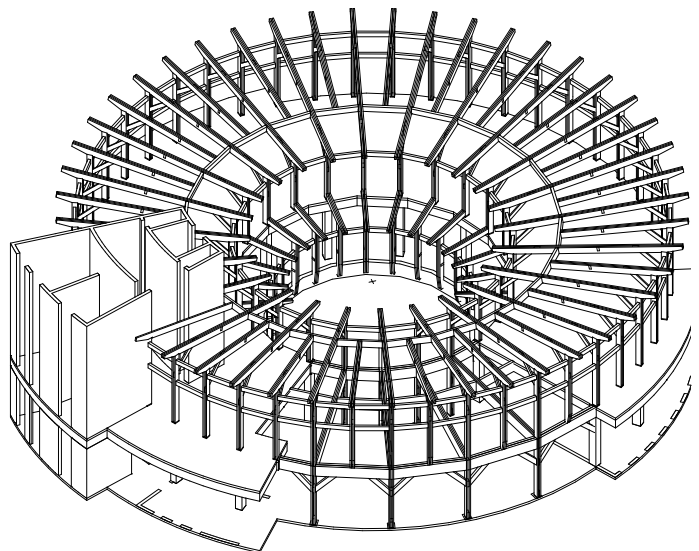
1. 복도 2. 체험교실



단면도



배면도



목구조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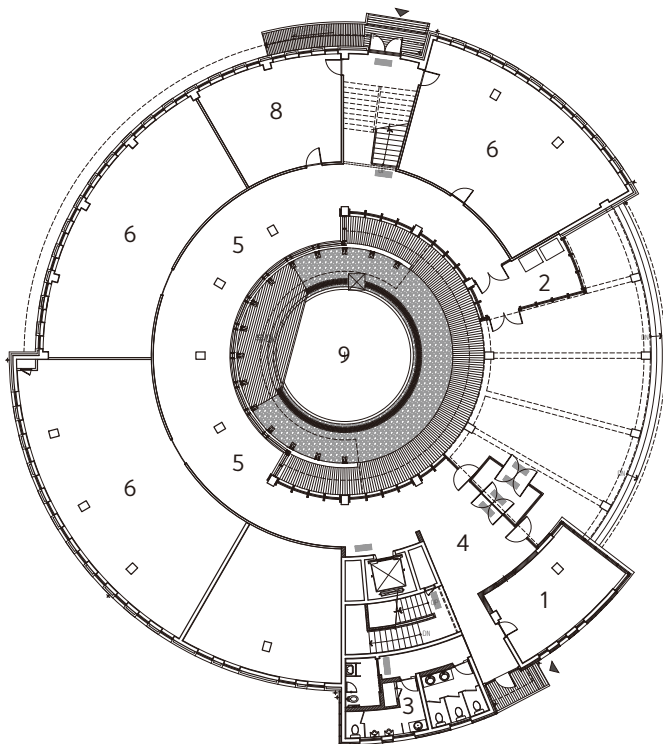
1, 3~5 _ 내부 전경 2 _ 동선로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은 '자연 속에서 목재를 통해 오감을 체험하는 공간을 설계한다'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화천군의 핵심 자원인 물에서 추출한 물방울의 파장과 목재 나이트의 이미지를 형상화시켰다. 이를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주변 지형을 감싸 안은 형태와 동선이 자유로운 방사형으로 각 실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교육-전시-체험이 하나로 연계되는 평면으로 계획하였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공간 즉 생활공간, 교육공간, 사회공간 속에서 목재에 대한 소중함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된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로 계획하였으며, 주재료로 사용된 목재의 생산, 가공 및 제작, 설치의 전 과정이 화천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서 친환경건축물을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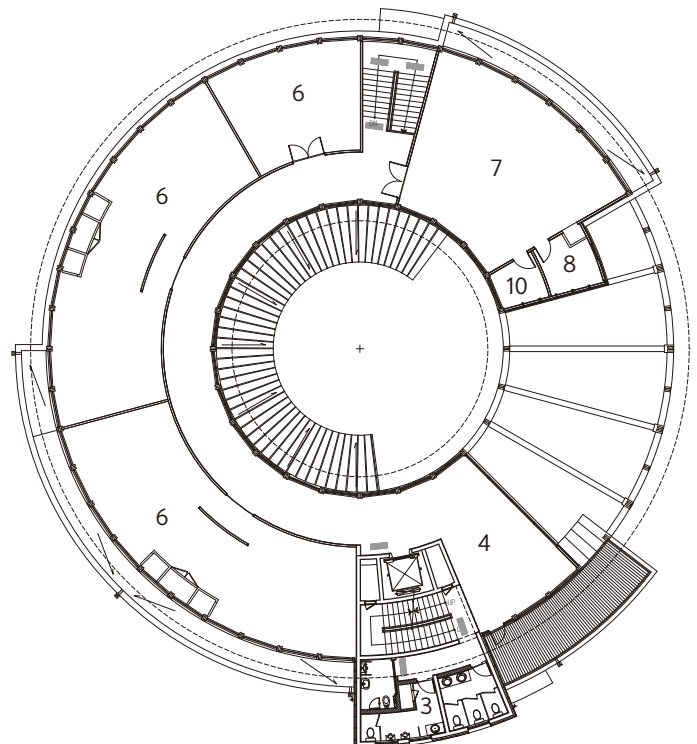




1. 사무실 2. 휴게실 3. 화장실 4. 홀 5. 복도 6. 체험교실 7. 세미나실 8. 창고 9. 잔디광장 10. 준비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강릉 참소리축음기 & 손성목 영화박물관

Charmsori Gramophone & The World's Best Film Museum



설계자 | 최성두_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
가톨릭관동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을 졸업하고 APEC 건축사,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운영위원, 강릉시 건축위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겸임교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연구센터(현상당선작), 강릉예대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회 등이 있다.





경포호수에서 바라본 참소리 축음기 박물관(왼쪽)과 손성목 영화박물관(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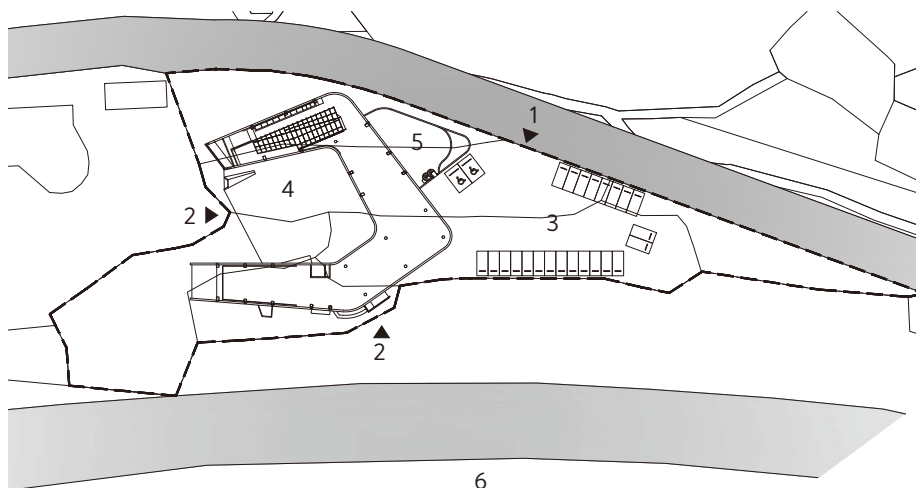


야외상영 및 공연, 집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중정 ©이정문



2007년 준공된 참소리 축음기 박물관

1. 차량출입구 2. 출입구 3. 주차장 4. 샘지마당 5. 선큰가든 6. 경포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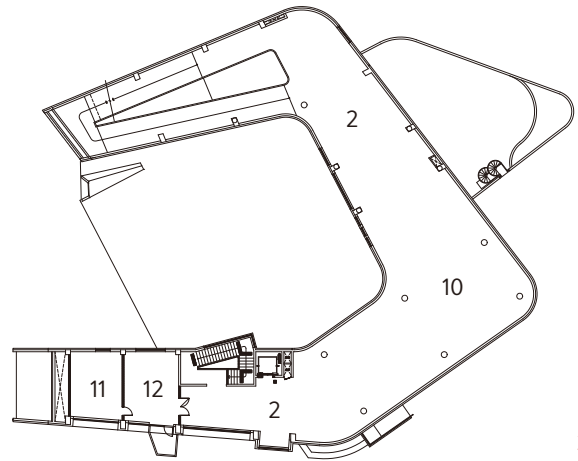
배치도

건축주 |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 (손성목 관장)
감리자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
시공사 | (주) 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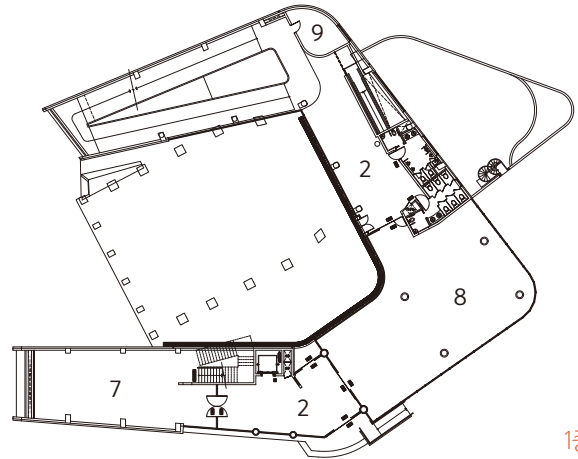
대지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저동 31 외5필지
주요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박물관)
대지 면적 : 4,707.00㎡
건축 면적 : 941.24㎡
연 면 적 : 2,520.24㎡
건 폐 율 : 20%
용 적 륜 : 36.77%
규 모 : 지하층, 지상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 - ALPOLIC + 대리석
내부 - 대리석+ 고급수성페인트
설계 기간 : 2012.07.24. ~ 2012.10.17
공사 기간 : 2013.05.15. ~ 2014.05.26

- 설계팀 : 김영래, 황재성, 성은주
- 전문기술협력
 - 구조 분야 : (주)나라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전기,소방,통신설비분야 : 대한설계감리사무소
 - 토목분야 : 청솔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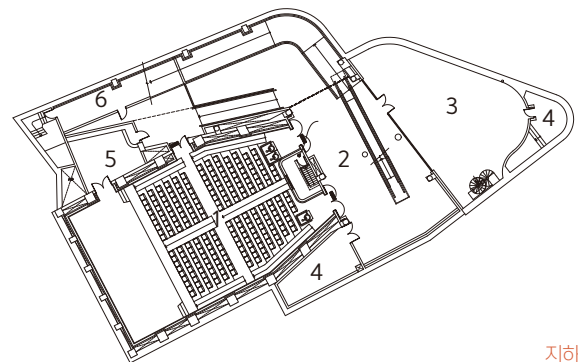
Client | Charmsori Gramophone Edison Film Museum
Architect | Choi, Sung-doo
Project team | Kim, Young-rae / Hwang, Jea-seong / Seong, Eun-ju
General Contractor | Wooil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Five pieces of land other than 31, Jeo-dong, Gangneung-si,
Gangwon-do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NARA Structural Engineers
HVAC Engineer | Deahyeon Design and Supervision
Electrical Engineer | Deahyeon Design and Supervision
Fire Engineer | Deahyeon Design and Supervision
Utilities | CHONG SOL Survey Engineering
Finishing | ALPOLIC, MARBL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Concept



아름다운 한마리의 학이 호숫가에 내려 앉아 알을 품는 듯 맑고 순수한 이미지를 현대적인 건축으로 표현

- | | |
|---------|-------------|
| 1. 시청각실 | 7. 특별전시실 |
| 2. 로비 | 8. 전시 및 휴게실 |
| 3. 선관가든 | 9. 사무실 |
| 4. 물탱크실 | 10. 전시실 |
| 5. 준비실 | 11. 관장실 |
| 6. 창고 | 12. 회의실 |



조류의 깃털 문양을 연상키는 외장패널로 마감한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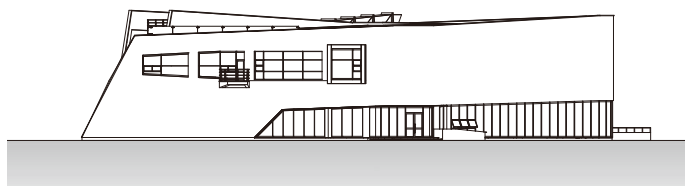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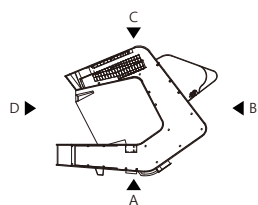
학이 알을 품는 듯한 형태의 매스 후면

2007년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이 경포 호수변으로 이전·개관하였다. 빛과 소리의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전시품과 특히,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에디슨의 과학 발명품을 다양하게 전시함으로써 그 명성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품격 높은 문화 박물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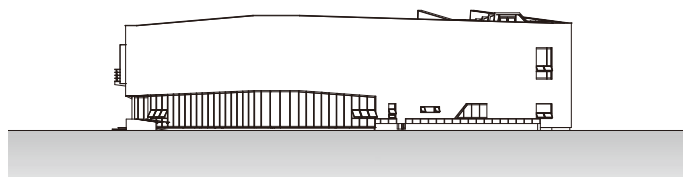
2014년, 영상을 주제로 하는 영상기, 필름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박물관을 추가로 개관함으로써 명실공히 빛, 소리 그리고 영상이 어우러진 삼위일체의 국제적인 종합영화박물관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건축물의 동선 및 평면은 건물의 내부와 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중정을 건물 중앙부에 배치하여 야외영화, 야외공연, 집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출입구로부터 전시공간의 동선과 흐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계단, 경사로 등을 완만하고 안전하게 계획하였다. 특히, 지하층에 있는 참소리 영화관의 관람 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상부의 출구, 휴게공간과 편리하게 연결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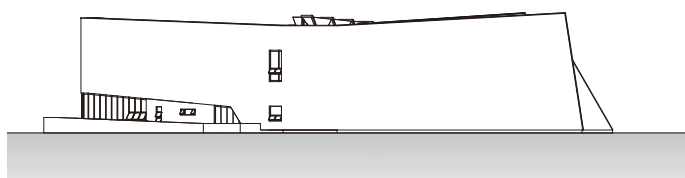
입면과 단면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밝고 산뜻한 색상과 조류 깃털 문양의 특성을 지닌 고급 외장 패널은 호숫가 소나무 숲에 살포시 내려 앉아 알을 품는 듯 고운 자태를 내뿜는 한 마리의 우아한 학이 연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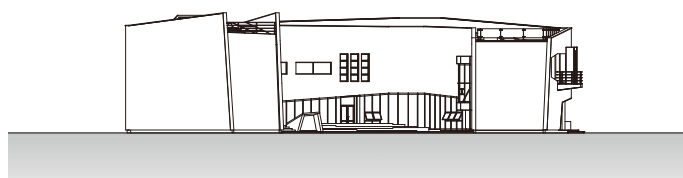
입면도 A



입면도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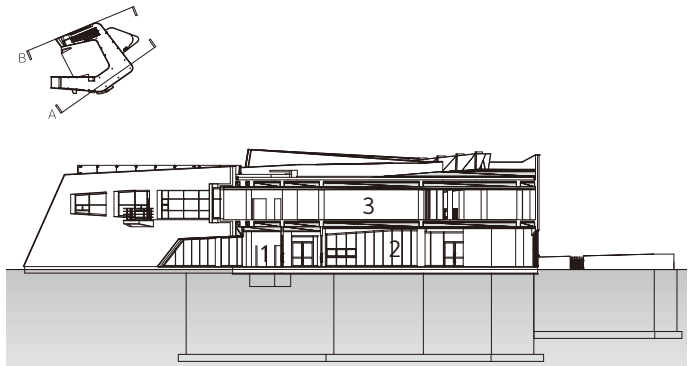
입면도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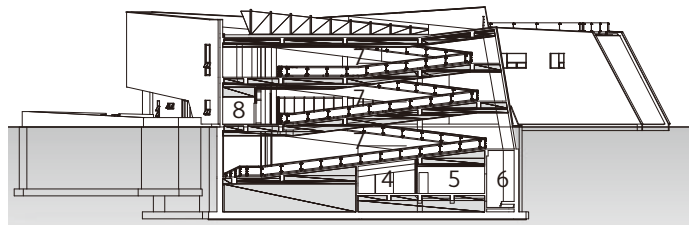
입면도 D



램프전시실 ©이정문



단면도 A



단면도 B

1. 방풍실
2. 전시 및 휴게실
3. 전시실
4. 복도
5. 창고
6. 펌프실
7. 램프전시실
8.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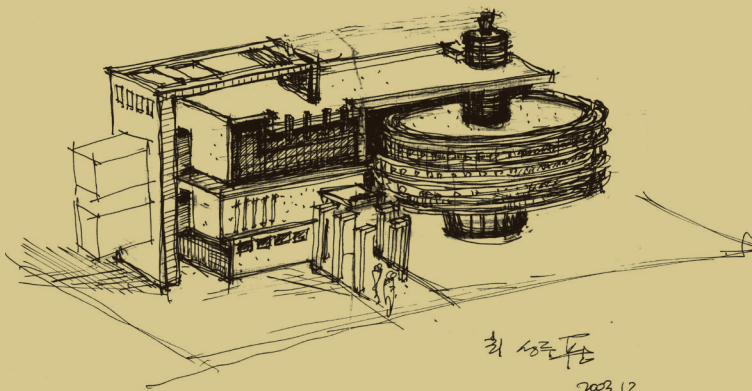


전시 및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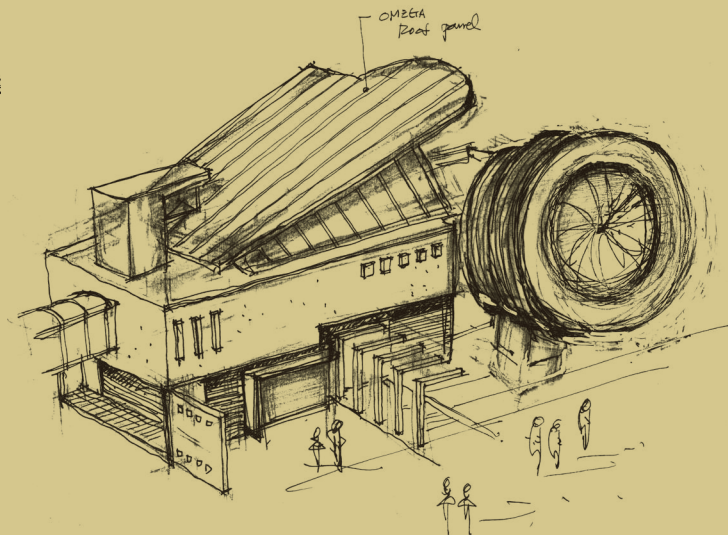
참소리 축음기 박물관



참소리 (Chamsori) 1st plan



초기 스케치 1



초기 스케치 2

청산청우(淸山聽雨)

Cheong San Cheong Woo





설계자 | 허민구 KIRA | (주)형제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하였다. 현재 (주)형제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이며, 대표작품으로는 화천군의회청사,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춘천벤델감리교회, 헤븐스터디기숙학원(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 수상) 등이 있다. 강원도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강원도 건축위원·도시계획위원·경관심의위원,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외래교수,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건축위원장, 2군단 건축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박창근 | 강원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강원대학교(춘천) 도시건축공학부 교수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강원대학교(춘천) 도시건축공학부 교수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S.O.M.(Chicago)과 B.I.P. & Associates(Chicago)를 거쳐 아키타나 도시건축연구소에서 실무를 다녔으며, 2000년에는 건축포럼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인천주택, 방이동주택 그리고 백제대교인도교화사업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길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건축 혹은 도시에서의 이동의 공간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건축주 | 김재동
감리자 | 박창근
시공사 | (주)아뜰리에

대지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71-38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81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4.51㎡

연면적(Gross Floor Area) | 141.2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2.9%

용적률(Floor Area Ratio) | 17.44%

규모(Building Scope)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 : 송판거푸집 제물치장콘크리트, 목재판넬(방끼라이)

내부 : 원목마루판, 벽지, 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04 - 2009.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3 - 2010. 09

사진(Photographer) | 박창근

- 설계팀 : 원대승, 이한미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미래SDG
 - 기계설비 : 청림설비
 - 전기, 통신설비 : 무림전기

Client : Kim, Jae-dong

Architect : Heo, Min-goo / Park, Chang-geun

Project Team : Won, Dae Seung / Lee, Han Mee

General Contractor : Atelier

Location : Koen-Ri 571-38, Dongnae-Myun, Chuncheon, Kangwon-Do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tructural Engineer : Mirae SDG

HVAC Engineer : Chung Lim Mechanical Engineers

Electrical Engineer : Moorim Electrical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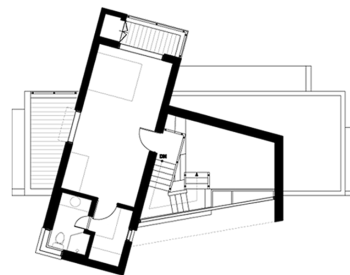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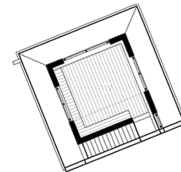
Finishing

Exterior : Exposed concrete, Wooden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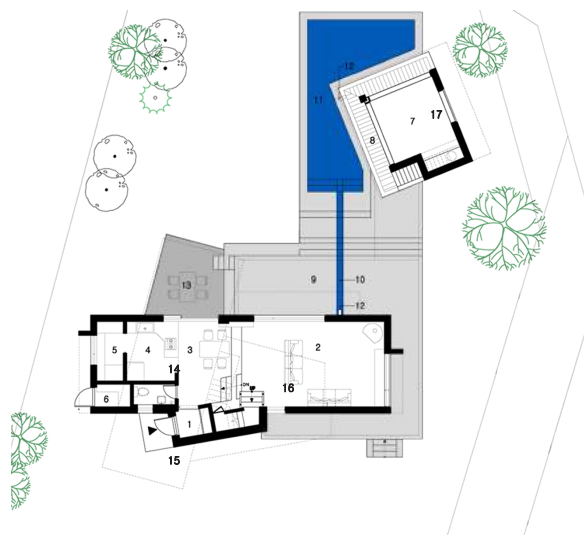
Interior : Ondol Wood Panel, Wall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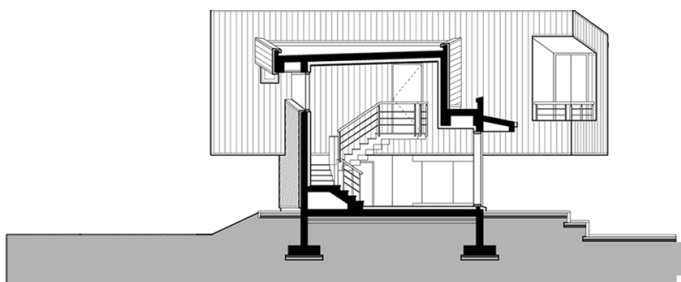
- | | |
|---------|------------|
| 1. 현관 | 10. 수로 |
| 2. 거실 | 11. 연못 |
| 3. 식당 | 12. 선홍통 |
| 4. 주방 | 13. 야외식당 |
| 5. 다용도실 | 14. 침실 |
| 6. 창고 | 15. 옷방 |
| 7. 정자 | 16. 거실상부 |
| 8. 툇마루 | 17. 정자상부데크 |
| 9. 데크 | |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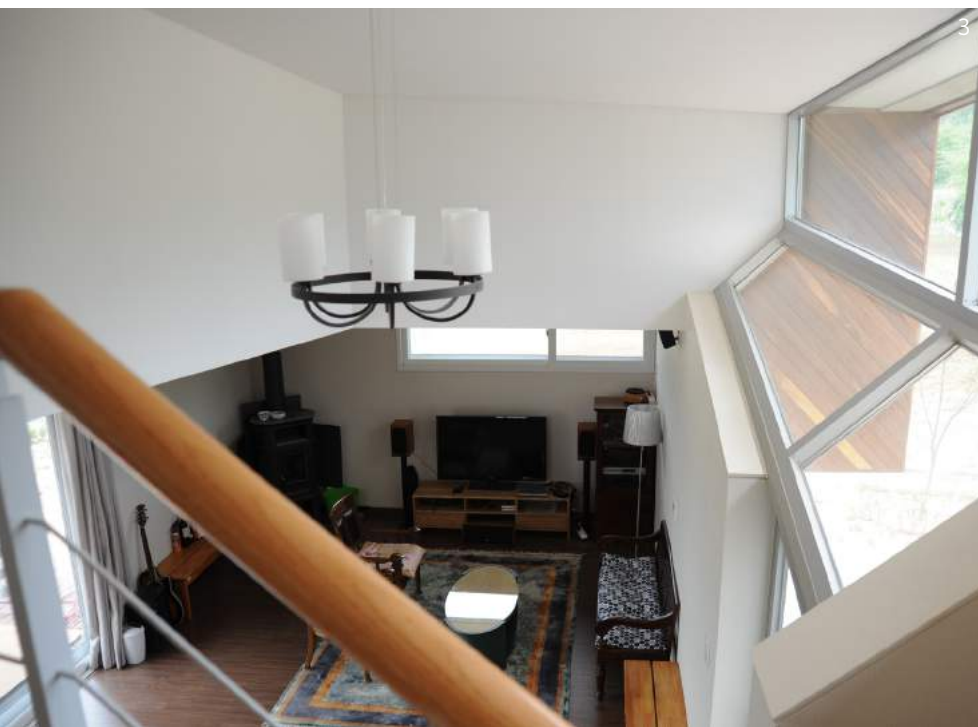
단면도



1_ 거실 2_ 건물 입구 3_ 2층 계단에서 본 거실 4_ 거실 창문

건축주와의 첫 만남에서 그는 ‘빗소리를 듣는 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좋은 화두다. ‘듣는다’는 청각작용을 시각예술인 건축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고, 빗줄기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작용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붕에 모인 빗물이 선홍통을 통하여 바닥으로 떨어져서 수로를 통하여 정자 주변의 연못으로 흘러드는 과정을 들으면서 동시에 바라본다. 본체와 정자 두 곳에 설치된 화분형 선홍통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請山聽雨(청산청우), ‘산을 불러들이고 비를 듣는다’. 집들이 하던 날 건축주가 제안한 집의 이름이다. 빗소리를 듣고 싶은 건축주와 주변의 산과 저수지를 인상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건축사의 바람이 조화를 이룬 좋은 이름이다.

이 집은 거실과 식당을 수용하는 1층의 일자형 매스에 침실 기능을 하는 2층의 일자형 매스가 가로질러서 얹힌 본체와 연못 주변에 독립적으로 위치한 정자로 구성된다. 정자는 본체와 더불어서 효과적으로 마당을 형성한다. 1층과 2층의 모든 방에서 서로 다른 조망으로 주변의 저수지와 먼 산을 바라본다. 특히 정자 상부의 데크에서는 저수지를 내려다본다. 돌출된 2층 매스는 현관과 식당 앞에 필로티공간을 만들어 야외활동을 좋게 한다. 식당과 거실은 80cm 정도 레벨차가 나는데 이는 식탁의 앉을 자리로 자연스럽게 활용된다. 이 집은 접근로를 등지고 저수지를 향하다보니 북동쪽을 향하고 있지만, 남쪽의 밝은 햇살이 거실의 높은 측창을 통해서 풍부하게 쏟아져 들어와서 발랄한 실내 분위기를 만든다. 이 남측의 커튼월은 1층과 2층의 매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계단매스와 통합되어 인상적인 파사드를 만들어준다.









중이온가속기

당선작

Raon Boulev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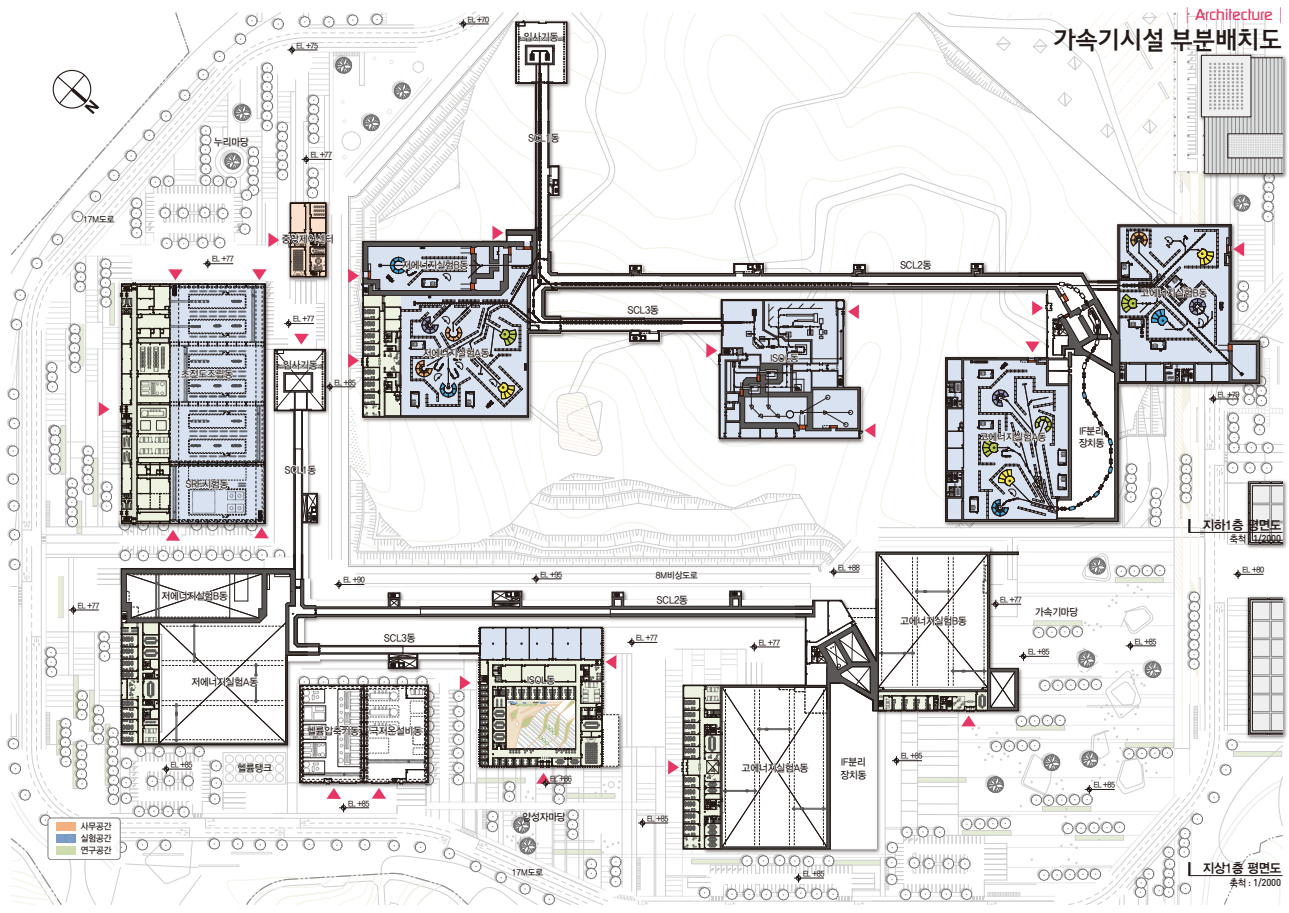
발주자 :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과학연구원
 설계자 : 이용호 KIRA II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엄필현 II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디자인 파트너 : 구영민 II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설계팀 : 이종훈, 고상수, 진재만, 김현재, 박정규, 조강희, 이환욱,
 김종균, 한미라, 황인범, 전보라, 신상현, 임대균, 이진대,
 이경환, 김진화
 건축주 :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과학연구원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지구 내 중이온가속기 사업부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대지면적 952,066.00㎡
 건축면적 104,162.99㎡
 연 면 적 129,660.77㎡
 건 폐 율 10.94%
 용 적 륜 8.58%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트러스조,
 스페이스프레임(지붕)
 규 모 지하2층~지상5층
 마 감 외부 : 금속패널 및 금속지붕재, 목재루버
 내부 : 에폭시페인트 및 수경페인트마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 거대 연구시설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고강도 고성능 희귀동위원소 빔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이 절실함에 따라 본 사업은 시작됐다.

‘즐거움 대가로수길’이라는 뜻을 가진 본 계획안의 컨셉 ‘Raon Boulevard’는 가속기 터널 내의 순간적 흐름과 지원시설로 연결되는 선적 형태의 보행동선을 은유한다. 먼저 대지의 지형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지반과 레벨을 결정하고 녹지와 수계분석을 통해 연계성과 확장성이 고려된 배치축을 설정하였다. 중앙의 임산보존구역과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진입축 정면에 본부동을 배치하고, 좌·우측에 엑셀러레이터 시설축과 부대 지원시설축을 선형으로 배치하여 가장 기능적이며 친환경적인 건물배치와 명료한 동선계획으로 중이온가속기의 기능성과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본 계획안은 한국형 중이온가속기의 상징적 디자인과 가속기동의 지반안정화, 장치조건의 충족, 마스크크리트의 품질관리, 완벽한 방사선 차폐 및 관리를 통해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구현됐다.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분양광고와 분양계약

Advertisement and contract of selling property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 구분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 내용은 청약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이하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포괄하여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이하 위 사항들을 포괄하여 ‘외형·재질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참조).

따라서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의 목적물인 건물과 대지의 면적 및 동과 호수를 표시한 아파트 1동과 이에 따른 전기, 도로, 상수도시설 기타 부대시설(공용)로 되어 있고, 기타사항으로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특별한 사정없이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또한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소의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파트의 외형·재질에 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고, 분양회사가 광고한 ‘온천, 바닥재(원목마루),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서울대학교의 이전, 일산과 금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육전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촌을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 콘도이용권의 제공, 전철복선화'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분양계약서는 아파트의 외형·재질에 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건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고 내용 중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과 '전철복선화'에 관한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인 회사가 그 광고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허위과장 광고라는 점에서 그 광고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분양광고의 내용 중 '온천, 바닥재(원목마루), 유실수단지' 및 '테마공원'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이며,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참조).

반면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완공된 아파트 등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준공 전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분양광고를 하거나 건본주택 등을 설치한 적이 있고, 그러한 광고내용과 달리 아파트 등이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아파트 등의 현황과는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등의

단지 중 일부는 준공 전에, 일부는 준공 후에 분양된 경우, 각 수분양자마다 분양계약 체결의 시기 및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구체적 거래조건이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분양회사와 각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م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있고 바로 뒤편 야산에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광고전단, 분양안내책자 및 조감도 등에는 신설될 위 초등학교 부지만 표시되어 있고 공동묘지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수목이 식재된 야산으로만 나타나 있다면, 수분양자들의 오해를 유발한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가 가까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까지를 감안할 때 공동묘지의 존재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분양회사로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분양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에게 위와 같은 공동묘지의 존재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참조).



serial

글. 이관석_ Lee, Kwan-seok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

건축 전공자라면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대해 조금씩은 안다. 현대건축에 끼친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은 어느 건축사 못지않게 자세히 소개됐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르코르뷔지에를 주목하는 것은 사회·예술·문화 전반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거침없이 더듬은 그의 예민한 촉수가 여전히 수많은 향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더듬어 따라가 각각의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안도할라치면 또 다시 예상치 못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생명력 앞에서 그의 사망 후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해진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에 이은 이번 르코르뷔지에 연재에서는 그동안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에서 약간 다른 면이나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면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지난 몇 년 간 학술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살폈던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건축 일선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를 접하기 쉽지 않은 건축사분들에게 르코르뷔지에의 또 다른 일면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르코르뷔지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자세가 어떠했는지, 다소 엉뚱하지만 직접 건축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그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을지, 불행 때문에 일거리라곤 없다시피 했던 10여 년의 무시무시한 공백기를 그가 어떻게 견디며 내일을 기약했는지, 스치는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바꾼 그의 인연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프랑스건축사 학위를, 파리대학교에서 예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남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2004)와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2011) 등의 저서를 비롯해 역서 <건축을 향하여>(2002), <프레시지움>(2004), <오늘날의 장식예술>(2007) 등 십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

연재 목차

1. 르코르뷔지에와 기계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上)
3.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下)
4. 르코르뷔지에의 '지속연구'
5. 르코르뷔지에의 인연
6.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上)
7.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下)

6.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上)

_ 시대정신의 반영이자 물질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건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건축 전공자라면 건축을 처음 배우는 순간부터 전문인이 된 이후에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화두일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의 총합으로 정리한, 일생의 업으로 삼은 건축에 대한 개인적 정의를 분별하고 공고화하여 자신이 취한 건축적 자세의 사회·역사·기술적 위상을 정리하면서 건축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식 있는 자의 본능적 행태의 발로라 하겠다. 최근에 건축이 무엇인지 묻지 말아야 한다며 얘기를 풀어놓은 책이 나왔지만, 이 역시 건축이 뭔지를 고민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

이 글은 르코르뷔지에 연재의 마지막 주제로서 이 질문과 관련된 연명 가운데 특히 그가 1920년대에 발표했던 저서들을 통해 표명했던 건축의 의미에 주목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0년대는 근대건축의 성립 기간으로 간주되는 시기로서 이전 시대의 건축과 구별되는 근대건축의 특성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발현되었고 다수의 선구적 예술잡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행되어 건축의 현대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던 때였다. 르코르뷔지에에는 화가 오장팡(A. Ozenfant) 및 시인 데르메(P. Dermée)와 함께 발행하여 1920년대 초반에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잡지 『레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에 실린 자신의 논평들을 묶어 별도의 책으로 연속 간행함으로써 20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건축의 길을 추구했던 당시 아방가르드의 치열했던 최전선에 나섰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본능적 이해력과 탁월한 시사적 감각을 지녔던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개념과 실험은 이 『레스프리 누보』와 함께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의 저서들 곳곳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뉘앙스로 개진되었던 새로운 건축의 정의에 관한 언급들에 내재된 상호 연관성을 정리하여 그 의미를 정리하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후 당시 전체 건축계에서 표명되었던 건축의 정의에 관한 역사적 언급들과의 비교 분석이나 그의 글과 건축 작품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레스프리 누보』에서 비롯된 저서들 중 특히 이번 글의 주요 출처가 되는 『건축을 향하여』와 『오늘날의 장식예술』 및 『프레시지

옹』에는 “건축은 ...다”, “건축은 ...에 있다”, “건축은 본질은 ...에 달려 있다”, “...는(은) 건축의 기본이다”, “건축적 구성은 ...이다” 같은 건축의 정의를 규정하는 문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들에 나오는, 건축의 정의와 연관된 문장들을 모두 발췌하여 문장의 전후 문맥과 아울러 각각에 담긴 키워드를 함께 고려하면서 각 문장에 담긴 개별적 의미와 상호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이 글의 뼈대가 될 분류의 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발췌된 전 문장을 개별적·전체적으로 거듭 정리한 결과에 따라 이전 건축과 다른 새로운 건축의 물질적 측면에서 본 범주와 이렇게 달라져야 할 새로운 건축이 지닐 정신적 측면에서 본 범주 및 그가 건축이 이르려야 할 궁극적 목표로 보는 감동으로서의 건축으로 대별했는데, 결과는 <표1>과 같다. 건축의 물질적·정신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저울질되어온 바, 르코르뷔지에 역시 물질을 통해 구축되지만 정신에 의해 통제되는 균형 잡힌 건축을 추구하면서도 각각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전 건축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건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¹⁾

이 주제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연재되는데, 이번 호는 <표1>로 정리된 논의거리 중 1920년대에 문필가이자 건축사로서의 르코르뷔지에를 이해하기 위한 요약과 건축에 대한 그의 모든 정의의 바탕에 깔린 시대정신의 자각과 기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가 물질적 측면에서 본 새로운 건축의 정의들에 담긴 의미까지 살펴본다. 정신적 측면에서 본 새로운 건축과 그가 건축이 이르려야 할 궁극적 목표로 보는 감동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정의는 다음 호에서 다루길 것이다.

<표1>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새로운 건축 정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건축			
물질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정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기능과 조직으로서의 건축	동선과 볼륨으로서의 건축	질서와 조화로서의 건축	자연광을 기본으로 한 건축
감동으로서의 건축			

1) 건축에서 형식과 내용의 적정화(propriety) 같은 고래로부터의 기본 원칙은 건축의 물질성과 정신성에 균형감각을 요구하지만 둘 사이에서 요동치는 비중의 변화는 건축역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르코르뷔지에도 “건축 정신은 오직 물질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의 결과로 생겨난다.”며 건축의 물질적·정신적 속성을 인정하였다.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105쪽.

Le Corbusier

시대정신이 반영된 건축

1) 1920년대 문필가로서의 르코르뷔지에와 시대정신의 자각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의 저서에 나오는 건축 정의의 바탕에는 그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적인 땅인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올바른 시대정신에 근거한 건축을 향한 열망이 있었음을 먼저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저서들에서 '시대'라는 용어와 함께 하는 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횟수를 넘어서 사실상 책 내용 전체가 시대정신을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살펴볼 건축의 정의 모두가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건축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건축은 시대에 기인하는 감정을 물리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다", "건축은 한 시대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데...", "건축은 시대정신의 결과입니다" 같은 거듭된 언급이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관점이 되었지만, 여기서의 관심은 그가 어떻게 남다른 시대의식을 가질 수 있었는가와 그가 당시를 어떤 시대로 인식했느냐에 있다. 먼저 그의 작업에서 집필활동이 지녔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로 문필가로서 르코르뷔지에의 모습과 건축 작업과의 관계를 요약해보자.

1920년대에 이미 르코르뷔지에에는 중요한 건축 이론과 건축물들을 다수 생산했지만, 단기간에 구축된 당시 그의 사회문화적 위상은 문필가로서 다져진 것으로, 건축행위는 왕성한 필력의 위력에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 둘 다 오장광이라는 출중한 친구의 선도로 시작되었지만, 1918년에 발표한 『큐비즘 이후(Après le Cubisme)』를 이은 정기 간행물 『레스프리 누보』는 최대 3,500부까지 발행되어 유럽 각국은 물론 멀리 미국과 일본까지 화가·조각가·건축사·의사·변호사·교육자·기술자·기업가·은행가 등 다양한 직업을 망라한 정기구독자를 확보하며²⁾ 혁신적 시각을 제공한 영향력 있는 잡지였다.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원리들을 다방면으로 이해할 필요를 느낀 당시 사회지도자들의 공통관심사를 『레스프리 누보』가 충족시켜준 것이다.

반면에 1920년대에 30대와 40대 중반 사이인 건축사로서 르코르뷔지에의 경력은, 상대적이지만 의외로 일천했다. 이 10년 동안 그는 준공을 기준으로 22개의 프로젝트를 신축 또는 증축하였는

데, 프뤼게 근대집합주거단지(Quartier Moderne Frugés, Pessac, 1924-26)를 제외한 대부분은 주택 같은 소규모 작업이었다. 20세기 건축 저술 중 가장 중요한 결과물의 하나로 평가받는 『건축을 향하여』를 발간했던 1923년 당시 그는 1908년에 발표된 로스(A. Loos)의 유명한 논설 『장식과 죄악』(Ornement et Crime)을 1921년에 뒤늦게 『레스프리 누보』에 불어로 번역 게재하면서 받은 교훈³⁾을 통해 마침내 빌라 슈(Villa Schwob, 1916-17)의 왕관(cornice)마저 걷어낸 보크레송 주택(Villa Vaucresson, 1922-23)을 건설했고, 오장광 주택(Villa Ozenfant, 1922-24)을 시공 중이었다. 이 1923년을 전후하여 그가 수주한 상당수의 주택이 대부분 예술 행위자나 수집가 등 예술 애호가와 후원자들에 의해 발주된 것에서 건축사로서의 그의 활동이 문필가로서의 활동 덕을 적잖게 보았음을 앞서 연재한 「르코르뷔지에의 인연」에서 이미 보았다.

르코르뷔지에는 1920년대의 10년간 36건의 지어지지 않은 계획안을 남겼는데, 1925년 이전까지는 한해 평균 2.8건의 작업(5년간 14건)에 그치다가 『레스프리 누보』가 중단되고 이어서 비롯된 『도시계획』, 『오늘날의 장식예술』, 『근대회화』가 집중적으로 발행된 1925년 다음해인 1926년에만 10건의 설계를 새로 시작한 사실도 그의 글쓰기 작업의 여세가 건축 작품 활동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⁴⁾ 이에 더하여 1922년의 300만 거주자를 위한 현대도시 계획안 전시와 1925년 레스프리 누보 전시관을 둘러싼 소동, 국제연맹 청사 신축을 위한 경쟁에서 기디온(S. Giedion)과 함께 했던 항의 등은 그를 국제적 논쟁의 중심인물이 되게 했다. 그는 오만에 가깝게 여겨질 만큼 자기 확신에 기초한 도전적 기질을 지닌 인물이지만, 또한 이러한 그의 성격이 글에도 나타나 흔히 정문(正文)의 규칙을 벗어나고 문법 및 문맥에서의 파격 속에 중의적 용어들이 빈번히 구사되었지만, 이 도전과 좌절, 쟁취의 거칠고 모난 시기에 그의 사고체계를 정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글쓰기 작업이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르코르뷔지에의 1920년대 저서들은 또한 그가 동시대의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당시를 장악했던 아카데미즘과 투쟁했음을 증언한다. 『건축을 향하여』 3차 증보판(1928년)의 서문에서 장막 뒤로 숨어 과거로 회귀해 버린 아카데미즘의 농간에 동점 당선된 자신의 국제연맹 계획안이 배제된 상황을 「고열상태」라는 제목으로 맹렬

2) Colomina B., Architecture et Publicité in Jacques Lucan(Direction de l'ouvrage),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142쪽

3) Maurice Besset, Le Corbusier, Skira, 1987, 30쪽. 이 글에서 르코르뷔지에에는 명석하고 독창적인 로스가 장식의 무용함을 개진하며 산업의 위대함과 그것이 가져온 기여를 미학에 적용하려는, 1921년 당시에도 여전히 혁명적이거나 기묘하게까지 보이는 확실한 진리를 선언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4) 작업의 리듬을 감안한 때문에 계획안을 시작한 해를 중심으로 보았다. 그동안 계획 및 시공연도가 책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장 최신에 면밀하게 조사된 결과물인 J.-L. Cohen(int.), Le Corbusier, le Grand, Phaidon, 2008, pp.758-759를 참조했다.

히 성토한 것에서, 건축사를 황산이나 독을 넣은 우유를 파는 장사꾼으로 비유한 데에서, 더 이상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축이 관습 때문에 질식되고 거짓인 양식들(styles)에 매몰되어 있음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장식예술이 만연되었음을, 과거 표절에 여념이 없음을, 건축이라는 위대한 예술이 장식이라는 빈곤한 수단으로 연명함을, 아카데미즘이 파리를 비롯한 세계의 대도시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위증자임을 고발할 때와 같이 저서의 곳곳에서 르코르뷔지에의 자신이 당시를 철저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저서들은 그가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을 뜻하는 시대정신(Zeitgeist)과 관련된 남다른 시각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1907년에 시작하여 1917년에야 끝나는 긴 답사 여행을 통한 개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여행은 스위스 산골도시 출신의 꿈 많은 젊은 이로 하여금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시각적 문화 습득과 산업혁명이 완수해 가고 있는 형태의 세계에 대한 충격을 경험하게 했다. 여기에 앞서 연재한 「르코르뷔지에의 인연」에서 거론됐던, 여러 선각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깨우침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기계와 건축

“근대 현상인 기계는 이 세상에서 정신의 개혁을 수행한다.”⁵⁾는 언급과 같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합당한 새로운 건축을 향한 르코르뷔지에의 열망에는 당시 산업계를 주도하기 시작한 기계가 주는 교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첫 연재에서 별도로 다룬 적이 있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을 덧붙여 다시 한번 요약해본다.

『건축을 향하여』는 첫 장인 「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 「대량생산주택」까지 줄곧 기계시대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다. 토목공학의 성취물인 곡물 저장탑이나 교량 같은 구조물이 보여주는 엔지니어의 미학과 독일공작연맹의 연감에서 새로운 산업시대의 주요한 기술적 구성원으로 이미 인정받은 대형

여객선, 비행기, 자동차 같은 기계화된 수송수단에서 새로운 시대의 양식이 이미 존재함을 확신한 것이다. 『프레시지옹』에서 르코르뷔지에가 신대륙 남미에서 행한 열 번의 강의를 「모든 아카데미즘으로부터의 해방」,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대를 연다」는 주제로 시작한 것도 그가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대정신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의 장식예술』의 「기계의 교훈」과 「건축의 시간」 같은 장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르코르뷔지에가 새로운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정신은 기계시대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기계의 속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⁶⁾ 산업혁명, 사회혁명, 정신혁명 이 모든 것이 조장된 지난 10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여 당시 사회를 빠르게 개조하는, 모든 것을 전복시킨 기계를 향한 그의 느낌은, 일상생활을 통해 정당화되는 바와 같이, 존경과 감사, 존중이었다. 거기에는 도덕적 감정마저 깃들어 있었다.

르코르뷔지에가 기계에 대한 경애심을 갖게 된 것은 핵심을 파악하는 그의 혜안 덕분이라 하겠다. 기계에서 정밀성, 경제성, 정확성, 엄격성, 순수성, 단순성 같은 건축이 본받아야 할 현대적 덕목을 발견한 것이다.⁷⁾ 원인과 결과의 순수한 관계라는 기계가 주는 교훈으로 인해 내포된 순수의 미학, 정확성의 미학, 표현적 관계의 미학이 우리 정신의 엄밀한 기계장치를 가동시킬 수 있음을 간파하고, “돌아가는 모든 기계는 현재의 진리”라고까지 말하였다.⁸⁾ 기계를 향한 이와 같은 호의로 그는 기계시대의 생산품을 새로운 정신이 충만한 작품으로, 순수를 지향하며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의 객체들과 동일한 진화법칙을 따르는 유기물로, 고귀한 시정을 지닌 현실적인 사물로 받아들였으며, 산업가들을 현대미학의 가장 활동적인 창조자로 인정하였다. 대형 여객선에서 조용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고 강한, 대담성과 단련, 조화와 아름다움의 중요한 발현과 대면하고 있음을, 비행기에서 부양하고 추진하는 수단을 공기에서 찾은, 제대로 제기된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자동차에서 분석과 실험을 통해 제어된 논리를 보증으로 한

5)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23쪽.

6) “인간사에서 새로운 요소인 기계는 새로운 정신을 일으켜 왔다. 한 시대는 자신의 건축을 창조한다. 이 건축은 사고 체계의 선명한 이미지다.”(『건축을 향하여』, 105쪽). “기계시대의 위대한 삶은 사회를 밑바닥까지 감동시켰고...”(『오늘날의 장식예술』, 60쪽). “근대 현상인 기계는 이 세상에서 정신의 개혁을 수행한다.”(『오늘날의 장식예술』, 123쪽), “기계가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프레시지옹』, 40쪽)

7) “기계에 의해 두드러진 정밀성의 시대를 반영하는...”(『오늘날의 장식예술』, 54쪽), “기계류는 엄격한 선택으로 이끄는 필수 인자인 경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건축을 향하여』, 138쪽), “이제부터는 기계가 불변의 정확성과 가차 없는 엄격함을 선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오늘날의 장식예술』, 82쪽), “우리를 좋은 감각으로 데려가는 기계장치들과 진리의 첫 접촉인 단순함의 심취와 ...”(『오늘날의 장식예술』, 118쪽)

8)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123-130쪽.

9) 르코르뷔지에의 당시의 시대상황을 잘 보여주는,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장식예술박람회의 프로그램을 “잘못된 조화, 날조, 속임수”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Le Corbusier

확실한 기반 위에 설정된 표준을 통해 완벽성에 맞서야 한다는 자각을 얻었던 르코르뷔지에의 깨어있는 의식이 시대정신에 합당한 건축을 갈구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1920년대 건축의 주류는 격변하는 세상과 동떨어진 채 과거로 회귀해 안존했다.⁹⁾ 그러나 유독 “건축만이 기계화의 방식에서 여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는 르코르뷔지에의 탄식은¹⁰⁾ 인습적인 교육과 기성세대의 그릇된 가치관에 의해 왜곡된 건축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그가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주택이 “작업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효과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기계이자 신체의 요구, 즉 안락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근면하고 세심하게 배려된 기계”면서 또한 “명상하기 편리한 장소며, 최종적으로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평안함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명상, 미의 정신, 이를 통제하는 (또한 이 아름다움의 버팀목이 될) 질서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 비로소 건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말했을 때¹¹⁾ 보수적인 아카데미 회원들은 “부동성, 가족의 보금자리”의 상징인 주택과 기계를 연계시켰다고 분노했고 진보적인 전위 예술가들조차 “서정성에 빠져 기계를 배반했다.”고 그를 비난했다.¹²⁾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

이와 같이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던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기존의 건축 용어를 빌려 내려졌음에도 그 안에 내재된 의미와 실천 방법론에 함축된 차이점은 때로 근원적이기까지 하다.

1. 물질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축

1) 기능과 조직으로서의 건축

1920년대의 저서들에 나오는, 시대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르코르뷔지에가 거론한 대량생산, 합리화, 기계시대 도래로 인한 산업화, 비행기나 선박 또는 자동차가 주는 교훈, 요구에 응하는 유형으로

서의 가구, 정신의 개혁을 수행하는 근대 현상인 기계가 주는 교훈, 즉 그 원인과 결과의 순수한 관계이자 순수성, 경제성, 지혜를 향한 집중인 기계가 보여주는 순수의 미학, 정확성의 미학, 표현 관계의 미학에 대한 찬탄, 시적 감흥의 기반으로 격상한 기술이 건축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는 주장 등은 시대정신의 자각에서 비롯된 새로운 건축의 바탕에 ‘기능’ 중시 사고가 있음을 시사한다.

“건축은 질서체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어떤 질서체계일까요? 기능과 대상에서의 그것입니다.”라는 그의 언급은 건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빈틈없는 해결책”으로 가지런히 바로잡아 질서를 부여함에서 시작됨을 나타낸다.¹³⁾ 구조화된 집합에서 하나의 요소나 부분 또는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인 기능(function)과 그 기능을 담는 물질적 존재인 대상(objet)의 위계화가 건축행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는 인간의 각종 계획을 담는 유용한 그릇들(기계 시대의 발전 궤적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건축)이 기능을 통해 만들어진다며 “건축은 기능입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으며 인류 역사의 한 장이 넘어간 징조를 분명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¹⁴⁾ 과거 건축의 폐단인 허식을 떠나 평범한 사람을 위한 주택¹⁵⁾을 연구하는 것을 인간적 기반, 인간적 척도, 필요형, 기능형, 감동형을 되찾는 것으로 여긴 르코르뷔지에를 이를 위한 인간의 척도와 기능을 탐구한 결과 ‘표준(standard)’과 ‘유형(type)’ 개념을 들고 나왔다.

르코르뷔지에에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유기적 조직체를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하며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요구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간의 작품에서 기술어진 질서에 대한 필요성이 낳은 결과인 표준을 근거 있는 분석과 실험을 통해 논리가 보증된 확실한 기반 위에서 설정하고자 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최대의 효율로, 최소한의 수단과 일손, 재료, 표현, 형태, 색채, 소리 등으로 기능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형을 추론하고자 했다. “우리는 완벽성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건축의 향하여』의 「보지 못하는 눈」 자동차 편은 마지막 문장도 “그러나 우리는 완전함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표준의 설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로 끝난다. 그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되며 당시

10)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104쪽.

11) Le Corbusier, Almanach d'architecture moderne, 1926

12)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105쪽.

13) 위의 책, 87쪽.

14) 위의 책, 251쪽.

15) 이때 주택에 해당하는 불어 maison은 또한 건물이라는 뜻으로 넓게 쓰이기도 한다.

기술의 최대치인 새로운 표준을 따라 대량생산되는 자동차의 전례로서 표준을 선택한 신중한 선택의 산물인 파르테논에서 발견하고, 페이디아스처럼 논리와 분석, 면밀한 연구의 산물로서 명확하게 규정된 문제에 기초한 표준에 의해 제어되는 건축의 가능성과 성공을 믿었다.

『오늘날의 장식예술』의 「유형으로서의 요구, 유형으로서의 가구」장에서 르코르뷔지에는 “인간 수족으로서의 사물이 유형으로서의 요구에 응하는 유형으로서의 사물”임을 직시하고 유형으로서의 요구를 연구하여 유형으로서의 기능을 파악하고 이것에 의한 유형으로서의 가구를 생산하자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척도와 인간의 기능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적 요구(이 요구가 유형이다)를 정의하여 장식예술로서의 가구가 아닌 완벽한 유용성과 편의성을 지닌 도구로서의 가구를 꿈꾼 것이다. 마찬가지로 『프레시지움』의 「가구의 모험」장도 평균치를 통해 표준 기능, 표준 필요, 표준 목적, 표준 크기를 구함으로써 인간의 요구인 유형을 정의하여 일정하고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기능에 들어맞는 가구 생산을 주장하였다. 가구를 사회적 지위와 축재 수준을 알리는 수단이 아닌 연장이자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자라는 의식은 다음 장인 「현대주택계획」에서 분류, 치수, 동선, 구성, 비례 연구를 통한 표준적이고 정확한 기능들이 성취되고 충족되는 건축으로 연결된다.

표준이나 유형 모두 최대치를 찾는 통계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볼 때 표준을 찾아 그에 합당한, 형태나 구조 등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유사성이나 동일성이 포착되는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간적 요구까지 일정한 틀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의하려는 과욕에 가깝다. 당시의 정황 상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건축을 통한 사회개혁의 꿈을 꾀던 당시 선도적 건축사들이 흔히 간과했던, 자신의 환경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인 개인(individu)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르코르뷔지에는 건축의 기능이 추상성을 통해 가장 고양된다고 주장함으로써¹⁶⁾ 표준화와 유형화의 궁극목적을 드러냈다. 이때의 추상성은 새로운 기계시대의 도래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서 도출한 수학적 계산을 활용하여 건축을 하는 엔지니어의 미학을 존중하는 의식으로서 장식에 심취한 주류 아카데미즘을 공격하는 미학

적 근거였다. 명확하게 인식되기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호함이 없는 간결성과 명확함을 드러내는 기본 형태들에 대한 그의 선호는 이후 살피볼 건축에서의 기하학의 의미와 아울러 빛과 건축과의 조화라는 연관성에서 재론코자 한다. 그에게는 당시 건축사들이 이러한 단순한 형태를 더 이상 구현하지 않음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또한 르코르뷔지에는 전술한, “건축은 질서체계를 세우는 일”이라는 정의와 연관되는 내용으로, 건축은 조직이며 건축사를 도면을 잘 그리는 제도 기능공과 다른 조직자로 생각했다. 조직적 두뇌를 가지고 조형적 결과에 대한 애정을 경계하는 적대자로서 과학적 인간이어야 하며 예술가와 학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계장치를 사고의 조직체로 인식했다. 기계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놀랍도록 능숙하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며, 행동이 완전하고, 힘세거나 우아한 짐승들처럼 조직화된 존재로 인정하고, 현대적 도시계획과 주거 모두 정확한 조직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의 기능적·인위적 구획, 시간과 인간의 삶이 누적된 도시의 의미 소거 같은 당연히 짚어야 할 문제점조차 그에게는 부차적이었던 것 같다. 단지 자신의 발상을 어떻게 전파하고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만 몰두했다.¹⁷⁾

그가 건축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방체들은 더 이상 마구잡이로 쌓아 방치한 현상이 아니라 조직적이며 분명히 의식적인 행위이자 정신성의 현상이었다. 암암리에 가졌던 무질서나 비조직화, 갈등 상황, 혼란의 개념을 극복하고 건축을 조직화와 내적 구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삶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작용 원천 그 자체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능과 조직으로서의 건축을 주장한 것이다.

2) 동선과 볼륨으로서의 건축

르코르뷔지에는 『프레시지움』의 「기술은 시적 감흥의 기반이며 건축의 새 시대를 연다」장에서 과거의 석조 주택과 상이한 철 또는 콘크리트 건물의 특징을 거론하며 현대 기술이 가져온 위대한 성과인 필로티가 적용된 사례로서 자신이 설계한 센트로소유즈 청사를 설명할 때 “건축은 동선(circulation)”이라고 선언했다.¹⁸⁾ 같은 책의 「현대 주택 계획」장에서도 동선은 “중요한 현대적 용어입니다. 건

16) “건축은 더 심오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숭고해지기까지 하는 건축은 객관성을 통해 가장 근원적인 본능을 발산한다. 건축은 바로 그 추상성을 통해 최고로 고양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건축적 추상은 냉엄한 사실에 근거하여 건축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정신화시킨다. 왜냐하면 냉엄한 사실은 실행할 수 있는 개념의 구체화이자 상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냉엄한 사실은 그것에 적용된 질서에 의해서만 개념화될 수 있다.”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46쪽

17) 그는 아이디어만 내놓은 이상가가 아닌 현실성 있는 기획가를 자처하며 ‘치료’가 아닌 ‘수술’ 요법으로, 가치 하락이나 평가 절하가 아닌 가치 창조인 도시화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은행가를 설득하며 국가가 보증하는 전략까지 상세히 논하였다. (『프레시지움』, 188-207쪽)

18) Le Corbusier, 『프레시지움』, 정진국·이관석 역, 동녘, 2004, 64쪽.

Le Corbusier

축과 도시계획에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할 정도의 동선 중시 사고는, 여기서 분량의 문제로 상술할 수는 없지만,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본질적 특성이었다. 건축을 평면적·정면 중심적으로 바라보던 2차원의 정태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동하면서 공간을 순차적으로 지각한 인간의 기억 능력에 의해 기능과 미를 동시에 느끼는 4차원의 동태적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

르코르뷔지에는 1920년대 자신의 건축 사고가 집대성된 사부아 주택(Villa Savoye, 1929-31)을 설명하며 이러한 새로운 건축은 평면과 단면의 개혁에서 비롯되어 여기서 구사된 순환동선은 방문자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피력했다.¹⁹⁾ 이 주택에 적용되었고 『프레시지옹』에서 사례들과 함께 다시 거론된 ‘돔-이노(Dom-ino) 이론’, ‘새로운 건축의 5원칙(5 points de l'architecture nouvelle)’, ‘네 가지 구성법(4 compositions)’ 같은 발상을 그는 생생한 현대의 물질을 바탕으로 얻은 자유로서 기술이 가져온 시학이며 서정이라고 자신했다.²⁰⁾

과거 건축의 폐쇄적·고착적·단절적 공간이 자유롭고 융통성 있으며 열린 근대적 공간으로 변모한 데에는 “... 건축은 공간, 너비, 깊이, 높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볼륨이고 동선입니다. 건축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집니다.”²¹⁾라는 르코르뷔지에의 언급 같이 건축을 동선과 볼륨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그는 볼륨을 동선과 함께 거론하고 있는데, 볼륨은 특히 『건축을 향하여』에서 자주 언급된다. 볼륨이 우리의 감각이 지각하고 평가하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소, 표면과 함께 건축이 스스로를 드러나게 만드는 요소, 건축적 감각, 즉 체감하는 감각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 언급들은 주로 보이는 외관으로서의 볼륨을 뜻하지만 또한 그 표면 속의 내부공간을 고려할 때도 이 용어가 쓰임이 포착된다. 즉 한 대상의 내·외부 모두를 염두에 둘 때 채택된다는 말이다.

르코르뷔지에는 우리가 흔히 오용하는²²⁾ 둘 다 ‘부피’로 번역될 수 있는 볼륨(volume)과 매스(masse)를 자신의 저서에서 분명히 구별하여 썼다. 그는 『건축을 향하여』의 「보지 못 하는 눈」장 자동차 편에서 진출입의 법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속도를 위해서는 커다란 매스를 앞에 두고(경주용 차), 안락함을 위해서는 중요한 볼

륨을 뒤편에 위치시킨다.”고 하였다. 내부가 조밀하게 차 있는, 중량감과 재질감이 강조된 덩어리(엔진부)를 매스로, 가볍고 얇은 표피에 싸여 있는 내부의 빈 공간(승차부)을 함께 고려할 때는 볼륨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건축에 적용 시 매스가 19세기까지의 어둡고 무거우며 폐쇄적인 건축을 의미한다면, 볼륨은 밝고 가벼우며 개방적인 이후 건축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전 건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부 공간성을 증시하는 근대건축의 특성을 드러낸 용어라 하겠다.

공간과 볼륨의 관계가 올바른 비례로 되어 있어야 고도의 질서로부터 만족을 얻는 건축에 합당하다는 르코르뷔지에의 지적은 그가 새로운 건축이란 더 이상 과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당연히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근대적 동선 및 내·외부가 동시에 고려된 볼륨 안에서 좋은 공간성을 품은, 더 나아가서 내재된 풍요한 정신성이 정제된 미학을 발산하는 건축임을 꿈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축을 향하여』에서 다섯 번이나 거듭 표명된, 가장 유명한 건축 정의 중 하나로서 르코르뷔지에가 1921년 『레스프리 누보』를 통해 건축 운동에 개입했을 때 가장 중시했던 모토인 “건축은 빛 아래에 볼륨을 숙련되고 정확하고 장엄하게 모으는 작업”이라는 정의는 외관으로서의 건축만이 아니라 자연광으로 충만한 좋은 내부공간을 함께 지닌 수준 높은 건축을 염두에 두고 한 선언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관석,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 동녘, 2011
2. BESSET, Maurice, Le Corbusier, Skira, 1987
3. COHEN, J.-L.(int.), Le Corbusier, le Grand, Phaidon, 2008
4.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5.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이관석 공역, 동녘, 2004
6.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7. LUCAN, Jacques,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19) “마지막으로 단면을 봅시다. 공기는 모든 곳에서 순환되고 햇빛은 모든 곳에 있으며 모든 곳을 관통합니다. 순환 동선은 현대 기술이 가져온 건축적 자유를 모르는 방문자를 당황스럽게 하는 다양한 건축적 감동을 줍니다.”(『프레시지옹』, 155쪽)

20) 위의 책, 158쪽.

21) 위의 책, 250쪽.

22) 『건축을 향하여』의 영문판에서도 역자가 두 단어의 차이를 모르고 르코르뷔지에가 구별하여 쓴 볼륨이라는 용어를 여러 곳에서 매스로 오역하였다. 한국어 번역판 중 불어 원본을 번역하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의 오역이 다수 발견된다.

UIA 2017 서울대회의 성공적 학술회의 준비를 위한 제언

-제18차 ICOMOS 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를 바탕으로

Recommendation for successful preparation
for 2017 UIA World Congress in Seoul Scientific symposium
Based on the participation in 18th ICOMOS Assembly and the Scientific symposium

글. 조인숙_ Cho, In-souk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International Co-director 2014~2017, UIA Work Programme 'Cultural Identity-Architectural Heritage'

2017 UIA 서울대회가 불과 2년 반 정도 후면 개최된다. 조직위원회가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대한건축사협회의 본질이 건축을 실무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학술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소개한다.

2014년 11월 9일에서 14일까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제 18차 총회 및 학술대회(The 18th General Assembly and Scientific Symposium)가 이탈리아 피렌체 아두아광장 1번지 소재 피렌체 박람회장(Fiera Firenze in the Congress and Exhibition area-Piazza Adua 1, 50123 Firenze, Italy)에서 열렸다.

대회 주제는 '인간 가치로서의 문화유산과 경관(Heritage and Landscape as Human Value)'이었다. 11월 9일; 대회참가자들을 환영하는 만찬으로 시작하여, 10일; 총회 개회식 및 학술대회 다섯 분야의 주제발표, 11일~12일; 주제별 학술발표와 12일; 차기 집행부 선거, 13일; 각종 관련회의 및 26개 학술분과위원회(26 scientific committees) 회의와 베니스 현장 50주년 기념 원탁회의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학술대회 분야별 보고를 시작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19차 대회를 공지했으며, 신입회장과 대회장의 인사말로 학술대회 및 총회를 폐회했다. 그리고 15일부터 건축탐방이 있었다.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이하 이코모스)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이코모스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국제 조직이다. 이런 종류로는 유일하게 비정부 조직(NGO)이며, 건축 및 고고학 유적(遺址)을 보존하기 위한 이론, 방법 및 과학적 기술적용을 증진하는 데 헌신한다. 모든 업무는 소위 '베니스 헌장'이라고 하는 1964년 건축사들이 제정한 '기념물과 유적지에 관한 보존 및 수리에 관한 국제헌장'에 의거한다. 이코모스는 건축사, 역사학자,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지리학자, 인류학자, 엔지니어, 도시계획가들로 구성된 회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혜택을 추구하는 전문가그룹의 네트워크다. 회원들은 건축물, 역사유적지, 문화경관 및 고고유지 등 각종 문화유산의 보존과 기준 및 기술

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95개 회원국(올해 듣기로는 144개국이라고 함)의 회원 수는 11,088명이고, 27개의 학술위원회가 있다(www.icomos.org).

같은 UNESCO 산하 기구인 UIA와 ICOMOS의 회원자격 차이는 ICOMOS는 국내 개인회원으로 본부국제회원이 가능한데 반드시 국가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UIA는 자격 등록된 건축사가 속한 회원국가 단위의 회원만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활동하고 싶어도 국제위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므로 좀 더 폭 넓은 회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술 쪽은 한국의 회원 특성상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에 필자가 속한 이코모스 학술분과위원회(ISCARSAH) 회의 및 필자가 투고한 논문이 채택되어 발표한 '학술대회 주제3: 전통지식을 통한 지탱 가능성(Scientific Symposium Theme 3: Sustainability through traditional knowledge)'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정들을 서술하니 다음 참가를 준비하거나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대회장 - 피렌체 박람회장-빌라 비토리아

1. 학술대회 (Scientific Symposium)

1-1. 주제선정과 발표논문 선정에 관하여

1) 대회 주제 선정

인간 가치로서의 문화유산과 경관 : 인권으로서의 문화
(Heritage and Landscape as Human Value: Culture as Human right)

위 주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안 중 선택되었다.

- The value of culture and for it, of conservation, restoration, Landscape as 'human right'
- The role of ICOMOS, as guarantee of Human Heritage (WHL- UNESCO)
- Topicality of ICOMOS "mission" between conservation and new paradigms
- Globalization and cultural identity, new interpretation of ancient values

(보고: Salvatore Settis, Maurizio di Stefano)

2) 제출논문 평가과정 및 일정 종합 (Evaluation process and scheduling synthesis)

학술대회(Scientific Symposium)는 논문 모집 초반부터 복잡한 구도를 드러내었지만 세계 각 곳의 전문가들 및 각종 지역기구에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참여해 수준 높은 논문 선정 기준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분야의 주제를 세부 주제로 나누어서 논문을 모집했다.

공식적으로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2월 11일까지 103일간 모집했고(애초에 1월 31일이 마감일이었으나 몇몇 회원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다소 연장됨), 놀랄만한 관심 아래 95개국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하여 1,300편의 논문 요약문이 제출되었다. (세부 진행방법 및 절차보고에는 94개국 1,296편이라 구체적으로 언급)

선정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 요약문 심사

(Pertinent), 흥미로움(General Interest)과 거절(Rejected)로 분류하여 저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평가단계(assessment phase)로 넘어갔다.

두 번째 단계는 1점부터 20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해서 구두발표(Oral Presentation Session)를 하게 할 것인지 포스터발표(Poster Session)를 하게 할 것인지 순서를 정했다. 이 단계의 심사는 81일간 진행되었다. 각각의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되었고, 한 논문에 학술위원 두 사람이 배정되었으며 포스터 발표논문 및 거절된 논문은 2014년 6월에 통보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구두발표 대상의 논문심사가 학술위원회 위원 두 사람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각 주제별 34명씩 전체 170편의 논문이 구두발표로 선정되어 2014년 9월 저자에게 통보되었다. 논문들은 각각의 기준 및 방법으로 최소 두 번 이상씩 심사되었고, 그 과정 중 8,000통의 수신메일 및 9,000통의 발신메일이 학술대회 메일로 교신되었다.

3) 진행방법 및 절차보고(Methodological Report)

학술주제는 다음 다섯 개의 분야별 주제로 구성되었다.

- 1주제: Sharing and experiencing the identity of communities through tourism and interpretation
- 2주제: Landscape as cultural habitat
- 3주제: Sustainability through traditional knowledge
- 4주제: Community driven conservation and local empowerment
- 5주제: Emerging tools for conservation practice

논문을 대륙별, 국가별, 회원/비회원 등으로 분류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주제별로 분류되었는데, 제2주제 부분이 전체 요약문 제출의 44%로 570편이 접수되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49%에 달하는 634편의 참여로 최다 요약문을 제출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이 19%인 240편, 아메리카가 17%인 226편, 아프리카가 7%인 96편, 중동지역이 8%인 100편의 요약본을 제출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182편 14%로 가장 많이 제출했으며, 다음이 이란과 프랑스로 각각 72편 5.6%씩 차지했으며, 이어서 중국이 70편으로 5.5%에 해당하는 요약문을 제출했다. (참고로 한국에서 제출한 논문은 20편으로 1.5%에 달했고, 1주제 6편, 2주제 5편, 3주제 5편, 4주제 4편이었다.) 마지막으로 회원/비회원 간의 구분은 회

원이 제출한 것이 705편으로 54.4%를 차지했고, 비회원이 제출한 것이 591편인 45.6%다.



ICOMOS 18차 총회 개회(회의장 입구)-다섯 종류의 색으로 각 주제를 구분

논문평가절차(Review Process)

가. 분류(First Classification)

논문은 2014년 3월 1일부터 5월30일까지 학술위원회 주제별 위원들에게 송부되어 1단계 분류작업이 진행되었다. 학술위원회는 각 주제별 이탈리아인 공동위원장 1인 및 국제공동위원장 1인과 분과별 6~7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박소현 교수께서 제4주제 학술위원으로 참여했다.)

나. 구분 (The classification identified three main Categories to divide the received abstract)

1,299편의 요약문 중 주제에 매우 적합(Very Pertinent) 412편 및 적합(Pertinent) 658편은 채택, 흥미로움(General Interest) 203편 및 거절(Rejected) 26편은 채택 아님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거절을 제외한 모든 요약문의 저자들에게는 온라인 콘솔 (<http://cmt.research.microsoft.com/HLHV2014>)을 활용하여 전문(full paper)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다. 평가(Review Process: Evaluation)

2014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2단계 평가가 진행되었다. 앞서 VP 및 P로 분류된 논문만이 평가대상으로 채택되었다. 평가단

게에서 항목별 점수로 각 논문의 순위를 정했다. 최종평가가 분류 당시 정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각각의 요약문은 최소 3인의 평가위원(각 주제별 공동학술위원장 2인 및 학술위원 1인)이 평가했다. 공동위원장들은 이렇게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국제학술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두발표자 및 포스터발표자의 목록을 작성했다. 다음 범주에 의거한다:

- 논문초록의 패러다임 전환의 증거(5점)

Evidence for a paradigm shift of the abstract (5points)

- 대회 주제의 연구에 대한 논문초록의 관련성(5점)

Relevance of the abstract to the study of the overall theme of the GA (5points)

- 연구의 독창성 및 가치 있는 새로운 의견(5점)

Originality of the research and presentation of new and valuable ideas (5points)

- 방법론의 혁신적 특성(5점)

Innovative character of the methodology (5points)



ICOMOS 18차 총회 개회(회의장 내부)

개개의 초록에 평가자들은 평점을 매기고(4~20점), 권장사항(구두발표O, 포스터발표P, 거절R) 및 간단한 의견을 달았다. 제출 논문의 숫자에 비해 채택 논문의 수는 아주 제한적이므로 평가기준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구두발표 대상의 논문은 적어도 탁월(excellent, 17점 이상)에서 매우 우수(very good, 15-16점)로 간주되어야만 했다.

- 포스터발표로 채택되려면 적어도 우수(good 12-14점)에서 적절(fair 10-11점)은 되어야 했다.
- 10점 이하의 논문초록은 모두 거절되었다.

2단계-논문초록 평가(Step 2-Abstract Evaluation)

권고 (recommendation)	평가 (evaluation)	등급 (rating)	결과 (output)
O1	Excellent	$x>17$	Oral presentation
O2	Very Good	$15<x<16$	Oral presentation
P1	Good	$12<x<14$	Poster session
P2	Fair	$10<x<11$	Poster session
R	Rejected	$x<10$	Potential new Rejected

O=구두발표 권고(Recommended for Oral Presentation) /
P=포스터발표 권고(Recommended for poster) / R= 거절(Reject)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출된 논문은 Oral1(Excellent)이 4개,
Oral2(Very Good)이 1개(편집이 잘못 되어 표시가 안 되었으나 다음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 P1(Poster Good)이 4개, R(Rejected)이 1
개였다.



제3주제 학술발표 및 토론 공동의장(피터 콕스-아일랜드, 피에트로 로레아노-이탈리아, 부의장 무니에 부쉬나키-유네스코)

논문평가절차: 구두발표 목록 선정
(Short Listing for Oral Presentation)

최종 평가는 2014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때 논문저자가 실제 발표할 것인지 확인하고 각 주제별 34편씩 선정해서 이들 중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주제별 여섯 명씩을 예비발표자로 선정했다. 모든 구두발표용 초록은 최소 두 사람의 다음 국제학술위원들이 최종평가를 했고, 구두발표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두발표용 초록 최종평가자 명단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Prof. Salvatore Settis	
Co-Chairs	
Maurizio Di Stefano	Italy
Monica Luengo	Spain
Vice Co-chairs	
Rosa Anna Genovese	Italy
Francesco Bandarin	Italy, UNESCO
Kristal Buckley	EXCOM
Pasquale Catanoso	Italy
Amel Chabbi	UAE
Lassana Cisse	Mali
Alberto Tesi / Marco Bellandi	Italy
Stefano De Caro	Italy
Dominique Fort-Schneider	France
Pamela Jerome	USA / Scientific Council
Toshiyuki Kono	Japan
Luigi Nicolais	Italy
Jose de Nordenflycht	Chile
Giovanni Puglisi	Italy
Julian Smith	Canada

최종선정은 공동학술위원장의 논문 선정, 국제학술위원회의 최종평가, 관심도, 논문의 질, 지역성 및 주제의 기준을 바탕으로 했다.

동점의 경우는 다음 내용에 따라 선정을 했다.

- 최종 점수와 순위
- 분야별 소주제의 초록 제출 수
(가령 두 논문이 동점일 경우 선정대상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분야의 논문으로 결정)
- 출신국가(다양한 국가가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
- ICOMOS 회원/비회원 여부

마지막 회원/비회원의 범주는 높은 학술수준에 관련된 ICOMOS 철학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또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라는 목적도 반영한다.

최종적으로는 48개국에서 제출한 논문이 각 분야별 주제에 따라 34편씩 선정되었으며 소주제별로 선정논문을 안배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발표자는 주제1에서 2개, 주제3에서 3개가 선정되었다.)



ICOMOS 18차 총회 회의장 내부(왼쪽에서 두 번째 참석자가 필자)

4) 논문제출 및 선정과정 등 (구두발표의 예)

가. 논문 모집(call for papers)

2013년 10월에 모집공고가 나서 애초에는 2014년 1월 31일까지 마감(필자는 1월 31일 제출)이었다가 2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제출요강은 분야별 다섯 개의 주제 중 하나를 택해서 영어 또는 불어 중 최대 3,000단어의 한 페이지 문건으로 작성한 다음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이다. (<http://www.icomos.org/en/about-icomos/image-menu-about-icomos/173-governance/general-assembly/665-call-for-papers-heritage-and-landscape-as-human-values>)

나. 선정 통보

(accepted for the theme 3 / classified: Very Pertinent)

학술위원회(Scientific Secretariat ICOMOS Italia-Luigi Petti, Claudia Ventura-, Co-Chairs -Maurizio Di Stefano, Monica Luengo)로부터 제출논문 작성요강(Template) 및 평가서(Review Guideline)가 첨부되어 논문초록 선정 통보(2014년 6월 10일자)가 왔다. 주제3에 '매우 적합'(accepted for the theme 3 / classified: Very Pertinent)하다는 내용과 함께 최종 논문은 7월 31일까지 주어진 요강에 맞춰 온라인(via the online platform <https://cmt.research.microsoft.com/HLHV2014>)으로 제출하라는 요청이었다. 그 후 학술위원회가 제출논문을 평가한 후 구두발표인지 포스터발표인지를 통보한다고 했다.

다. 논문 제출(final text)

최종 논문은 제출했던 초록 및 참고문헌과 약력 포함 15,000단어에서 22,000단어로 작성하되, A4 4~6페이지로 영문 또는 불문이어야 한다. 익명으로 심사하기 위해 다양한 파일을 각자의 온라인 콘솔에 올려야 했다. 사진 및 도표는 2페이지 이내로 원고 뒤에 넣어 한 파일로 만들어야 했다.

인 콘솔에 올려야 했다. 사진 및 도표는 2페이지 이내로 원고 뒤에 넣어 한 파일로 만들어야 했다.

- 저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된 파일
- e-book 제작을 위한 파일
- 전체논문 파일 .doc 또는 .docx
- 원고에 들어간 사진 및 도표들

7월 31일 규정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에 논문을 올렸다(Paper ID 213). 이 때 논문초록을 수정해서 첨부했다. 그리고 바로 Conference Management Toolkit으로부터 수신확인메일을 받았다.

라. 구두발표 통보(information for authors) 및 제출

9월 17일이 되어서야 구두발표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고(Oral Presentation Theme 3), 9월 30일까지 발표논문과 함께 사진 1매 및 약력(350자 정도)을 함께 제출하라는 요청이 왔다. 이어서 9월 18일 발표용 자료의 기본 틀을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으라는 통보가 있었다. (Official Layout for Authors-http://florence2014.icomos.org/en/symposium/authors_info)

'Oral Presentation(Power Point Template): ICOMOS Slide Theme3(.pptx)'라는 별도 규정이 주어졌다. 필자의 경우 발표용 pptx는 pdf형식으로 주제3의 전용 dropbox를 활용하여 자료를 보냈고, 현지발표는 준비해 간 prezi로 진행했다.



피렌체 도시 곳곳에 걸린 관련행사장 표시

1-2. 학술대회 (Scientific Symposium) 개요

1) 개요

학술대회는 2014년 11월 10일 팔라조 델리 아파리(Palazzo degli Affari)에서 개최된 총회 첫날 학술대회 다섯 분야의 주제에 대한

각 주제별 학술위원장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11일~12일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분야별 발표 후에 14일 총회장에서 분야별 결과를 보고했다(안타깝게도 필자는 다른 일정으로 14일 최종 보고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 1주제: Sharing and experiencing the identity of communities through tourism and interpretation - Ms Emma Madelli (Italy); Mr Neil Silberman(USA)
- 2주제: Landscape as cultural habitat - Mr Amerigo Restucci (Italy); Mr Yukio Nishimura(Japan)
- 3주제: Sustainability through traditional knowledge - Mr Pietro Laureano(Italy); Mr Peter Cox (Ireland)
- 4주제: Community driven conservation and local empowerment - Mr Luigi Fusco Girard (Italy); Ms Tara Sharma (India)
- 5주제: Emerging tools for conservation practice - Mr Paolo Salonia (Italy); Ms Sheridan Burke (Australia)



제3주제 학술발표장 (벽쪽은 포스터 발표)

2) 분야별 주제발표 - 주제3

분야별 주제발표는 세션1이 11월 11일 오전·오후에, 세션2가 12일 오전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필자가 참석한 '주제3. 전통지식을 통한 지탱가능성(Theme 3. Sustainability through traditional knowledge)'은 대회장과 빌라 비토리아 베르데 홀(Congress Center, Villa Vittoria, Sala Verde)에서 열렸다.

진행은 공동의장인 Mr. Pietro Laureano(ICOMOS Italy); Mr. Peter Cox(ICOMOS Ireland)와 부의장 Mounir Boushenaki(UNESCO)가 맡았고, 보고서 작성은 Lisa Davis(USA)와 보조인력 Sylvie Duvernoy(France)가 수고했다.

계획된 발표는 11일 오전 세션에 10개 논문, 오후 세션에 11개 논

문 및 12일 오전 세션에 11개 논문이었다. 실제 발표는 대부분이 영어로 했고, 11일 오전 6개 논문 중 불어가 하나, 오후 7개 논문 중 불어가 하나, 12일 오전 7개였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합동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통역이 준비되지 않아서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었고, 발표자 중 중국 발표자의 경우 토론에는 통역을 대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애초에 불참을 통보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현장에서 호명하여 자리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에 맞게 진행되지 않아 막상 발표시간에 와보면 이미 끝나버린 경우도 많았다.

필자의 경우도 다섯 번째 순서였는데 앞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 필자의 글은 '송례문에서 배운다-원형복원과 최첨단기술의 구현(Learning from Sungnyemun -Restoring its original condition and implementing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이라는 제목으로 송례문 복원에 대한 소개였다. 주안점은 제목에서도 시사했듯이 한국의 문화재 보수·수리의 기조와 충력을 기울여 애쓴 점 등을 부각하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조사·연구를 한 점들을 소개했다. 더불어 건축사 협력부분과 도시경관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점도 피력했다. 다행히 상당한 호의적 반응과 질문들이 있었다.

11월 12일 오전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종상 교수께서 마을 숲의 미학에 대해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다(한국인 발표자는 필자와 성 교수 두 명이였다). 발표자 목록 및 발표문 등은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다.

'Very Pertinent'라는 평가는 '대회 요강 및 주어진 주제와 얼마나 적합하느냐'이지 '잘 쓴 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2014년 대회는 경관과 관련되어 제2주제에 논문이 많이 몰렸고 조경 및 경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으나, 항상 다양한 회원들이 자기 전공분야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 지난 2011년 과학기술대회에서도 논문이 채택되어 발표를 했는데, 학자도 아닌 건축사가 쓴 논문이 채택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잘된 글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주어진 주제를 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한다는 점'이라 여긴다.

2. 학술분과위원회(ISCARSAH) 회의

2-1. 회의

건축유산의 건축구조 분석 및 수리 위원회(ISCARSAH, International committee on Analysis and Restoration of



ISCARSAH 정기회의(필자가 부회장으로 선출된 학술위원회)

Structures of Architectural Heritage)의 2014년 연례회의는 11월 13일 오후2시~6시 빌라 비토리아 202호에서 22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멕시코 회의 회의록 검토 및 승인

지난 2014년 10월 14일 오전9시~오후12시에 멕시코 크리스탈 그랜드 레포르마 호텔 알라메다 실에서 진행되었던 회의내용이다.

2) 신규회원 소개 (회의 후 보내온 목록을 첨부)

4명의 전문회원(4 Expert Members), 5명의 준회원(5 Associate Members), 2명의 연권회원(Corresponding Member)이 회원으로 승인되었다(명단 생략).

3) 집행부 구성 (신임)

President : Prof.Görün Arun (Istanbul, Turkey)

Vice Presidents : Cho In-Souk (Seoul, Korea)

Khalid El Harrouni (Rabat, Morocco)

Stephen J. Kelley (Chicago, USA)

Maria-Margarita Segarra-Lagunes (Rome, Italy and Mexico City, Mexico)

Secretary General: Marcela Hurtado (Valparaiso, Chile)

4) 정관개정

주로 명예회원의 투표권 및 집행부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5) 투표절차 및 일정

6) 기타

웹사이트 재개, 뉴스레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Toolbox

7) ISCARSAH Agenda에 의거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논의

2-2 보고사항 및 기타

1) 2016년 봄 한국회의 개최에 관하여

(ISCARSAH Meeting in Korea)

지난번 약속하고 불발로 끝난 한국에서의 회의 개최에 대해 다시 한 번 요청이 있었고, 일본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2016년 봄에 한국에서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등의 형태로 회의 개최를 요청받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 보고했다. 일본 측 파트너는 Toshikazu Hanazato 교수(ISCARSAH)이며, 일본은 IWC(International Committee on Wood)와 공동개최를 원한다고 했다.

2) ISCARSAH Expert Database

필자를 포함한 ISCARSAH 신임 집행부가 진행 중인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양식이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는 생략한다.

3) ISCARSAH Newsletter

일년에 세 번씩 뉴스레터를 만들었다.

4) International Symposiums etc.

ISCARSAH 위원회가 공동주최 또는 참여 예정인 관련 국제학술행사 및 공지사항 등

-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evaluating Contemporary Design in Historic Context'/22-24 July 2015 Istanbul, Turkey

- CIPA(International committee on Heritage Documentation) /2015 August 31. - September 4. Taipei, Taiwan (<http://www.cipa2015.org>)

- CIAV: International committee on Vernacular Architecture와 협력 행사계획 중

- ICORP: International committee on Risk Preparedness와 협력 행사계획 중

- Scholarships for The Advanced Masters in Structural Analysis of Monuments and Historical Constructions (<http://www.msc-sahc.org>)

3. 후기

장시간 공백이 있기는 했지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1988년 이래로 오랫동안 국제위원 활동을 했어도 그동안은 업무협약, 협회활동보고 중심의 회의, 학생 잼버리 담당 등의 국제회의에 참여했지 학술발표의 경험은 없었다. 학술분야로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초청으로 발표했던 2001년 오키나와포럼이 첫 국제세미나 발표 경험이었다. 당시 늦깎이 박사과정을 시작하던 해였다. 그 후 개별적으로 참가했던 유네스코 2001년 파리학술대회가 계기가 되어 이후로 여러 번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에 필자가 속한 학술위원회 ICOMOS-ISCARSAH의 부회장직을 수락했다. 건축유산의 건축구조 분석 및 수리위원회(ICOMOS- IACARSAH)에 전문가로 참가하게 된 경위는 건축 관련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ICOMOS 한국위원회 특성상 실무건축사가 드물어 빈자리를 메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16년 봄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본 자리가 전문가로 교체될 때까지는 책임을 다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2014년부터 2017년 차기 서울대회 때까지 'UIA Work Programme Cultural Identity-Architectural Heritage'의 International Co-Director로 임명되어 헤리티지 분야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특히나 이는 ICOMOS와 상당부분 관련이 된다. 유럽의 ICOMOS 회원들은 건축교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거의 건축사(Architect)들로 UIA Heritage 분야 위원이기도 하다. 두 단체는 모두 유네스코의 산하 또는 관련조직이다. 건축유산을 지정하고 보존·관리하는 일의 자문기구인 ICOMOS가 담당하는 보존과, 건축을 실무로 하는 건축사들의 단체인 UIA가 담당해야 할 건축유산 보존 사이에 업무분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다행히 필자가 ICOMOS 위원이니 상충되는 부분은 미연에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 학술논문 선정과정 등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설계한 것을 논문으로 만들어 발표하고 국제적으로 교류함으로써 한국도 알리고 다른 나라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외국어는 잘하면 좋지만 못 한다고 해도 발표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많은 중국인들은 심지어 통역을 데리고 오기도 한다. 이런 것을 계기로 더 많은 건축사들이 국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i. 대회준비위원회에서 배포한 진행 및 절차보고서(methodological report)에서 발췌·요약했다.

ii. 9월 18일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나 10월 2일 갑자기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아 화들짝 놀라서 다시 확인 작업을 하니 스팸메일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받았다는 연락이 바로 오지 않으면 즉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iii. 독일에서 문화재 보존 쪽으로 짧게 공부하며 바이에른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ICOMOS 위원장이 독일의 미하일 페첵 교수였고('문화유산'이라는 세미나에 두 학기 참여하기도 했다), 2002년 귀국 후에도 지금까지 해마다 독일 문화재 보존 연례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ICOMOS는 관련해서는 2008년 ICOMOS Thailand Bangkok 대회 시 논문이 채택되어 '인왕산 선바위 및 국사당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고, 2009년 ICOMOS France Bordeaux 회의 등에 개별적으로 참석하다가 정식으로 ICOMOS 총회 및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해 참여한 것은 2011년 파리대회가 처음이었으며, 최근 피렌체 대회가 두 번째다. 관련 학술행사로 필자가 회원인 세계건축사연맹(UIA)에서도 지난 2011년 동경대회 및 지난 2014년 8월 더반 대회 때에도 헤리티지 관련 논문발표의 기회가 있었다. 이는 건축설계뿐 아니라 헤리티지 학술분야에 지속적 관심을 쏟는 일환으로서의 작업이다. 특히 올해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의 UIA 헤리티지 포럼에서 조선왕릉 보존에 대해, 피렌체 학술대회에서 송례문 복원에 대해 소개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현행 제도상 현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직접 공사에 또는 설계에 투입되는 않았더라도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iv. 현재 UIA 본부 집행부와 Work Programme의 International Director 중 한국인은 혼자다. 지역으로는 우리지역(Region 4)의 이사가 한 분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런 국제 활동들에 경비가 지원되면 일하기 덜 힘들 것 같다. 개인 일이 아니지 않나? 지난 더반 대회 때도 헤리티지 분야 논문 발표 차 초청받아 참여하는데(경비는 없는 초청이다)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미숙하다고 여겼다.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학술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로 하면서도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ICOMOS 한국위원회 일인 ICOMOS-ISCARSAH만 해도 일 년에 최소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자비를 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이번 UIA 헤리티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든 임무야 수행하겠지만 걱정이다(voluntary service 서약을 썼지만).

그런데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의 동료 자문위원이 "WP는 별 활동을 안 하세요?" 라고 묻는다. 본인 기준으로 하는 말이다. 진두지휘를 안 해보고 참석만 해 봤으니... 본인들이야 회의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어떻게 하든 어필해서 협회비용으로 다니면서, 그것도 무슨 책임을 맡아서가 아니라 대한건축사협회 활동을 보고한다는 명목으로... 아마 그들 중 누군가가 필자가 맡은 프로그램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이사회 개최 현황

□ 제1회 이사회

2015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9일(금) 오후2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회원 징계 처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 : 회원 징계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회 임시이사회

2015년 제1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1월 28일(수) 오후2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2015년도 실천계획(안)의 건」「2015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한·영 그린빌딩포럼 참가의 건」「홍보사업비 집행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 : 2015년도 실천계획(안)의 건
- 협회발전분야에 협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기로 함.
- 제2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기획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기로 함.
- 제3호 : 한·영 그린빌딩 참가에 관한 건
- 당초 참가 예정인원(녹색건축위원회 1인, 사업위원회 1인)에,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1인을 추가하기로 함.
- 제4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집행 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 인수·인계시 정리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7회 법제위원회 팀장회의

제7회 법제위원회 팀장회의가 지난 1월 7일(수) 오전10시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일부개정안 제23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제2호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안) 검토의 건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함.
- 제3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검토의 건
-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함.

□ 녹색건축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회의

녹색건축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회의가 지난 1월 7일(수) 오전10시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
- 점검대상 확대 :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추가와 함께 숙박시설 추가를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점검면제대상 : 현행을 유지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발주 : 국토부와의 사전공감대 형성을 통해 연구 발주를 기획하여 총회 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 안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점검대상이 녹색건축물의 건축행위시인 점과 향후 녹색건축물이 대폭 확대될 것을 감안할 때, 안 제15조제2항 녹색건축물의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우리협회가 포함되는 내용을 건의하기로 하며,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회는 역량을 다해 관계기관과 치밀하게 협의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 건축사법 규제개선관련 긴급 법제위원회 팀장회의

건축사법 규제개선관련 긴급 법제위원회 팀장회의가 지난 1월 29일(목) 오전7시 30분에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사법 규제개선관련 검토의 건
- 국토부에서 제안한 규제개선 정비대상 내용 중 5년제 졸업생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제16회 50년사 발간위원회

제16회 50년사 발간위원회가 지난 1월 12일(월) 오후 4시에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50년사 검수의 건
- 50년사 인쇄물 검수확인

□ 제5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제5회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지난 1월 5일(월) 오후 3시에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계획 수지예산을 축조 심의·조정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안을 확정하고, 이를 기획위원회에 제출키로 하며, 아울러, 2014년도 수지결산이 확정되면 각 회계별 현금이월금을 반영하여 계수조정토록 사무처에 위임함.

□ 제3회 기획위원회

제3회 기획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월) 오후 2시에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계획 수지예산을 축조심의·조정하고 일반회계는 현금이월금 감소로 인한 세입·세출 균형을 위해 세출조정(안)을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제4회 기획위원회

제4회 기획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수) 오후 3시에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계획 수지예산 '기획위원회(안)'를 확정하고, 이를 임시이사회와 시도회장회의에 제출키로 함.

□ 제8회 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3일(화) 오전 11시에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건

- 제31대 회장선거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선거인 중 협회의 전수조사시 소재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최대한 연락처를 확인토록 함.

- 제2호 : 회장선거 세부사항 결정의 건
- 협회 제31대 회장선거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결정함.
- 제3호 : 후보자 합동토론회 준비지원금 결정의 건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한 제31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시·도건축사회 준비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함.
- 제4호 : 감사선거 세부사항 결정의 건
- 2015년도 본협회 감사선거 세부사항을 협의·결정함.

□ 제1회 경력관리 업무개선TF

제1회 경력관리 업무개선TF 가 지난 1월 14일(수) 오후 2시 30분에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전반적인 업무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단기와 중·장기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제1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

제1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5일(월) 오전 11시에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5년도 장학사업의 계획과 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 제1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

제1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5일(월) 오전 11시에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5년도 장학사업의 계획과 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 첫직선제 회장 탄생, 제31대 회장에 '조충기 건축사' 당선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직선제' 회장에 기호 5번 조충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간향)가 당선됐다. 조충기 당선인은 지난 1월 20일, 21일 양일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시한 '제31대 회장선거'에서 유효득표수 6,634표 중 26.06%인 1,729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유권자 수는 8,247명으로 6,634명이 선거에 참여, 80.44%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는데, 스마트폰 투표가 높은 투표율을 견인했다. 투표방법 집계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권자는 총 5,100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1,534명보다 3배가 많은 수치를 보였다.

기호순으로 발표된 투표결과, 기호 1번 강석후 후보 1,680표(25.33%), 기호 2번 김영수 후보 1,725표(26.0%), 기호 3번 이창섭 후보 584표(8.8%), 기호 4번 정태복 후보 916표(13.81%), 기호 5번 조충기 후보 1,729표(26.06%)로 집계됐다. 결과발표 직후 강성익 선거관리위원장은 조충기 당선인에게 곧바로 당선증을 전달했다. 조 당선인은 "회원을 위한 강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충기 당선인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감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및 이사, '월간 건축사' 편집국장을 거쳐 지난 2년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선거, 장양순·김득수 건축사 출마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감사선거 공고를 내고 선거일정에 들어갔다. 선거 공고직후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등록 순으로 장양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건축)와 김득수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가 출마했다.

선관위는 2월 4일 선거공보물 검수를 거치고, 16일 선거공보물 발송과 선거인명부 확정 등을 거쳐 오는 2월 26일 열리는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선거는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공식 출범

대한건축사협회 17번째 시도건축사회인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이하 세종시건축사회)'의 출범 기념식이 지난 1월 6일 조치원에 위치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세종시 이춘희 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청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세종시 지역 공무원들과 창립 건축사 회원 56명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세종시건축사회 출범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2년여 기간의 준비를 거쳐 올 해 공식 출범하게 됐다.

한편 세종시건축사회는 지난 해 9월 29일 행복청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영수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인 신년 인사회' 참석

협회 김영수 회장과 권병조 상근부회장은 지난 1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17개 건설관련단체 단체장 이외에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경식 국토교통부 차관, 김태원 의원, 김희국 의원(이상 새누리당), 정성호 의원, 이윤석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장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인도네시아 UNPAR 대학 건축학도 80명 협회 방문

협회는 지난 1월 14일 오전 9시 건축사회관에서 인도네시아 UNPAR 대학교 건축학부 학부생 80명을 초청해 한국의 현대 건축 흐름과 전통건축에 대한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의 목적은 미래 아시아 건축을 선도할 아시아 건축학도들에게 한국의 건축 및 역사와 문화, 도시설계 및 관련 규제에 관한 내용의 강연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강연은 협회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인 신춘규 건축사(씨지에스 건축사 사무소)의 '한국건축문화대상을 통해 본 한국의 현대건축의 흐름'과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 도연정 연구원의 '한국전통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2014년도 건축사자격시험’합격자 자격증 수여

협회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시에 201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수여식을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201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469명으로 남성 381명(81.2%), 여성 88명(18.8%)이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전체 응시자는 4,923명으로 합격률은 9.5%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38명(50.7%), 40대가 211명(45.0%), 50대 이상이 14명(3.0%), 20대가 6명(1.3%)순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 발간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가 협회 창립 50년을 맞아 1월 15일 발간됐다. 건축사, 건축문화 그리고 협회가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총 3장으로 구성돼 1장 건축사, 2장 건축사협회, 3장 건축문화 순으로 수록됐다.

부록으로 전회원 사진, 창립 후 협회 및 건축계 연표, 도표로 보는 건축사 등이 게재돼 건축사와 협회 그리고 건축문화 50년 역사를 총망라했다는 평가다. 50년사 발간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위원 박경립·박찬정·장양순·최동규)는 '14년 2월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본 사서의 기획, 원고집필, 윤문, 편집 등에 전념하여 제작을 완료했다. 50년사는 17개 시도건축사회, 전국 지역건축사회, 국회 및 정부, 주요 도서관 등에 배부됐다.



안동지역건축사회, 건축설계 향상 위해 BIM 도입

안동지역건축사회가 지역건축사들의 건축설계 향상을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술을 도입한다. 지난 1월 16일 안동지역건축사회와 그래픽소프트코리아가 업무협약을 갖고 지역건축사들 전원이 예외없이 3D Modeling 및 도면화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라이브러리 및 애드온개발지원, 기타 기술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제8회 컬러콘크리트 워크스 포럼’

아시아 유일 한국 개최, 2011년 이어 두 번째

최근 건축 트렌드 중 하나인 컬러 콘크리트의 최신 적용 사례 및 다양한 무기안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컬러콘크리트 워크스 포럼’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행사이다. 국내 건축사,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공무원, 학계,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베이퍼록스 안료를 적용해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실현한 국내 외의 다양한 컬러콘크리트 건축물과 컬러 콘크리트의 심미적 가치, 디자인 가능성에 대해 소개한다.

세계 최대 무기안료 공급자인 랑세스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3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문의 : 02-6715-5155 www.lanxess.co.kr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11월말

시도	정회원 현황		정회원 사무소 현황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사무소 없음	사무소 합계
	정회원 수	비율	1인	2인	3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서울	2,415	25.63%	972	18	0	990	911	117	38	13	10	1,089	33	2,112
부산	804	8.53%	566	6	2	574	136	25	5	2	1	169	4	747
대구	731	7.76%	555	13	5	573	73	11	4	3	1	92	11	676
인천	396	4.20%	304	2	0	306	60	8	1	0	0	69	9	384
광주	316	3.35%	234	1	0	235	52	5	1	2	1	61	2	298
대전	360	3.82%	269	5	0	274	37	7	3	1	1	49	3	326
울산	239	2.54%	205	4	0	209	19	3	0	0	0	22	1	232
세종	57	0.60%	31	0	0	31	18	4	0	0	0	22	0	53
경기	1,279	13.57%	916	3	0	919	273	14	5	1	1	294	25	1,238
강원	253	2.69%	209	2	0	211	31	2	0	1	0	34	1	246
충북	328	3.48%	246	2	0	248	47	4	2	2	1	56	1	305
충남	359	3.81%	288	2	0	290	53	5	0	1	0	59	0	349
전북	330	3.50%	278	4	0	282	30	5	0	0	0	35	4	321
전남	259	2.75%	218	0	0	218	31	1	0	0	1	33	2	253
경북	527	5.59%	459	5	1	465	41	5	0	0	0	46	4	515
경남	592	6.28%	533	3	0	536	45	4	0	0	0	49	0	585
제주	177	1.88%	145	0	0	145	24	3	0	0	0	27	2	174
합 계	9,422	100%	6,428	70	8	6,506	1,881	223	59	26	17	2,206	102	8,814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5년 1월말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880	3,899
서울	4,043	2,510
부산	788	168
대구	694	108
인천	386	11
광주	316	91
대전	372	73
울산	240	54
경기	1,471	191
강원	262	31
충북	329	94
충남	334	73
전북	340	42
전남	278	95
경북	507	43
경남	610	89
제주	182	69
세종	53	21
기타	1,675	136
비고	회원 : 9,266 / 비회원 : 3,614	대학 : 3,589 / 대학원 : 310